



# 신라교역|주|

PURE AND HEALTHY MINDS FOR HARMONIOUS COOPERATION

58년 역사 신라교역은 세계의 바다에서  
수산자원 개발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주식회사

신라에스지, 신라엔지니어링, 원일특강, 동화청과, 비전힐스, 신라섬유, 신라문화정화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 30 / (02)3434-9900 / www.sla.co.kr

# 원양산업

제 1175 호  
(2024년 11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물)

## Contents



### 협회소식

- 협회,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참석 / 4
- CCSBT 31차 연례회의 참석 / 5
- 2025여기 한-키리바시 참치선망 입어협상 진행 / 6
- 2025년도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모집 / 6
- 기후변화시대, 원양에 희망 있다 / 7
- 세계 최고급 생선, 이빨고기 / 9



### 이달의 요리

- 대구탕 / 10



### 해외수산물정보

#### ■ 국제유가 동향

- 1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84달러 / 11

#### ■ 참치어업 동향

- 美 대선이 미국 참치 무역에 미칠 영향은? / 12
- 중서부태평양 9월 어획량, 약 13만 톤 / 13
- PNG, MSC 인증 확대 힘입어 다량어류 어획량 신기록 / 14
- 日 눈다랑어 9월 수입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15
- 日 냉동 참치류 9월 수입 통계 발표 / 16

-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 2023년에 감소 / 17
- 남방참다랑어 쿼터, 자원량 증가로 2만 647톤 확정 / 18
- 머스크社, 변동성이 운임가격에 미치는 영향 설명 / 19
- 스페인 참치 선망선, 한국 기업 동원산업에 매각 / 20
- 중국의 대 EU 참치 수출 급증으로 경쟁국 긴장 / 21
- 중동 분쟁,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 성장 촉진 / 22
- MSC “지속가능 참치수산물 수요 성장 중” / 23
- 에콰도르 1~8월 참치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 24
- 스페인 참치 협회, 열대 참치 대상 MSC 인증 / 24
- EU 2024년 상반기 통조림 수입량 약 26만 톤 / 25
- 포르투갈, 어획 할당량 증량 주장 / 26
- 美 2023년 연승선단 어획량선단 수 증가 / 27
- 몰디브의 어류 수출 크게 감소 / 27
- 환경정의재단, EU에 中 참치 수입 통제 강화 촉구 / 28
- NGO, 대만 FCF社 공급망 내 환경 파과인권 침해 주장 / 28
- 뉴욕타임스, 참치 건강 영향지속가능성 분석 기사 발표 / 29
- 日 연구진, 점다랑어 잡종에서 참다랑어 정자 생산 성공 / 30

####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해외 수요 증가 / 31
- 日, 해외 오징어 어업 동향 보도 / 32
- 페루 1~7월 오징어 어획량 14만 5,411톤 / 33
- 아르헨티나, 일렉스 수출 급감으로 9월 수출 실적 타격 / 33



## 협회,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 참석

글로벌 해양안보·산업 전망 논의 및 원양산업 역할 제언



우리 협회는 11월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대한민국해양연맹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패러다임 전환, 상생'을 표제로, 글로벌 해양안보 및 해양산업 전망 등을 논의할 목적으로 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이헌승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대한민국해양연맹,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해운협회, KMI,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을 비롯하여 경영지

원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임기택 전 IMO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해양안보, 해운, 조선, 수산, 물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수산 부문 발표를 맡은 김영규 협회장은 ▽해외어장 유지·확보를 통한 원양산업의 재도약 추진 ▽경영 안정 지원 ▽안정적인 선원 수급 등 원양업계 현안과 함께, 원양산업이 선제적 민간 외교 및 지속적 수산자원 확보를 통하여 국가 해양력 강화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CCSBT 31차 연례회의 참석

'24~'26 남방참다랑어 TAC 등 합의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31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 우리나라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이행 위원회에는 원태훈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수산 주정일 부장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1부 최봉준 과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4~'26 남방참다랑어 TAC 및 국가별 할당 △바닷새전략계획 △전자어획문서 제도 △부수어획, 전재, 어선기록부 등 보존조치 개정 검토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회의에서 '24~'26 남방참다랑어 TAC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국가별 할당 논의 결과 우리나라의 할당량 또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다.

## 2025어기 한-키리바시 참치선망 입어협상 진행 조업일수, 가격, 전배조건 등 주요 사항 합의

우리 협회는 2025어기 한국-키리바시 참치선망 입어협상을 추진하였다.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키리바시 측에서는 Hon. Ribwanataake Awira 해양수산자원개발부 장관, Mr. Riibeta Abeta 차관, Mr. Kaon Tiamere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피지대사관 안준영 1등 서기관, 동원산업 이상범 부장(위원장사), 김영현 대리,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신의섭 과장, 신라교역 김성철 차장, 마현진 과장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해외협력

1부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2025어기 조업일수, 가격, 전배조건 등 주요 사항이 협의되었다. 키리바시 측은 한국의 ODA 사업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2025년도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모집 2025년 2월 14일까지 모집 예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산업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도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2025년 양성과정에서는 어선 5급 40명(항해 20명, 기관 20명)과 어선 6급 20명(항해 10명, 기관 1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급이 2025년 2월 14일, 6급이 4월 11일까지이다.

5급 과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론 3.5개월, 실습 1.5개월 과정에 선사실습 1개월이 추가된다. 6급 과정은 2025년 5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론 1.5개월, 실습 1.5개월까지 진행되며, 선사실습 1개월이 추가된다. 교육비·교재비·실습비가 국비로 지급되고 입교 1개월 이후부터 훈련수당 20만원과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료생에게는 해기사 면허(각 5급, 6급) 취득에 필요한 승선경력이 인정되어, 해기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선사실습 1개월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접수처: <https://kimft.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list>

※문의처: 051-620-5843 또는 5841.



# 기후변화시대, 원양에 희망 있다

##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동반한 협력 및 협상 전략 필요

바다는 인류 삶의 원천으로 영원히 보존해야 할 자원의 보고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온에 민감한 어자원은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공해 등 멀리 위치한 곳으로 서식 수역을 이동 중이다. 또한 각국의 연근해 주변에서 어류의 집단 폐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류는 생리학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변온동물이다. 문제는 수온에 따라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류에게 호흡 장애, 혈액의 pH 불균형, 삼투조절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류에게 수온 1도의 상승은 마치 사람에게 있어 공중목욕탕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쇼크를 일으키는 생존의 위협이 된다.

지난 56년 동안 지구 표층 수온은 0.7도 상승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상승치는 평균 1.44도로 지구의 평균 상승보다 2배 더 상승하였으며, 특히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마저 씨가 말라가는 동해는 수온이 1.9도나 상승하였다. 어류로선 기존의 서식 수역에서 죽지 않으려면 생존이 가능한 수온을 찾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이름이 50개가 넘는 명태의 경우, 1981년 우리나라에서의 어획량이 16만 톤을 기록하는 등 정점을 찍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어획량이 1톤 이하로 실 어획량을 통계 데이터

로 확인이 어려운 수준이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연중 어획이 불가한 어종이 되었다. 1등 수산물인 오징어 역시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만 톤 정도 어획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2만 3,000톤 정도로 어획량이 급감하였으며, 가격은 급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쇄빙선 아라온호는 지난해 북위 76도에서 오징어를 발견한 데 이어, 올해에는 더 위쪽인 북위 77도에서 오징어 성체만이 아닌 유생까지 확인하였다. 오징어는 북극해에 일시적으로 해류를 타고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서식지까지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이동에 대한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징어와 같은 대중 먹거리 자원 확보를 통하여 수산물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참치, 조기 등 다양한 어종에 여러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원보유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의 정책을 반영한 각양각색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가장 큰 공간이며 대부분(70%)의 산소를 생성하는 바다에서 우리 원양어업은 미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연근해에 없거나(참치, 명태, 이빨고기) 부족한(오징어, 꽁치, 대구) 어종을 해외에서 확보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기후 및 국제적 어업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국가의 대응에 앞서 항상 선도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왔다. 원양어업은 또한 우리나라 및 세계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안보 향상과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원양어업은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요인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원양어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76년 세계 각국의 200해리 선포 이후 자원보유 연안국들은 수산업의 자국화를 50여 년에 걸쳐 추진하였다. 그러나 어선, 어로기술, 시장 등 여러 요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하는 수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안국의 수산업 자국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양어업은 아직까지 자원보유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수산자원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해어장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은 국제규범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원양어업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원양어업은 65만 톤에서 93만 톤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며, 2022년에 원양어업 생산량은 잡는 어업 총 생산량의 46%(합작 포함)를 차지하는 74만 7천 톤을 기록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원을 꾸준히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원양어업 생산은 식량안보와 수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또한 연근해어장의 제한성을 감안하면 원양어업의 발전은 국가적인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해외 연안국 관할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양 어업은 단순한 잡는 어업에서 양식, 가공,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연안국과 수익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합작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해어업은 국제수산기구의 과학적 자원관리 및 어업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쿼터 기준 조업 방식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수산관리 회의 시 합리적 결과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전략과 협상력이 필요하며,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어떠한 값을 치러도 식량을 구하지 못할 극단적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안보'를 넘어선 '식량주권'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양어업은 식량자급률 증대 및 글로벌 식량 경쟁을 넘어, 시장국 및 항구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확보와 정치·외교적 영향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전쟁'과도 같다. 이는 각국이 자국 원양 선단에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쏟아붓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복합적인 전쟁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식량주권' 확보와 영양 있는 음식을 향시 충분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해양, 2024년 11월호 수록〉



# 세계 최고급 생선, 이빨고기

## 2년간의 요리법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의 결과

이빨고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비막치어’라고도 불린다.

이빨고기는 보통 ‘메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대구를 뜻하는 스페인어 ‘메르루사(Merluza)’를 ‘메로’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따라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실은 이빨고기를 ‘메로’라고 부르는 것은 두꺼비를 보고 개구리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며 두꺼비아 개구리목으로 동일하게 분류되지만, 이빨고기는 농어목이고 대구는 대구목으로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빨고기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아르헨티나에서 ‘검은 대구(Merluza-negra)’라고 부른다.

이빨고기는 수심 50~3,850m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류로 최대 몸길이가 2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이다. 이빨고기는 남위 40도 이남에 주로 분포하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와 남극 수역에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남극 이빨고기(Antartic Toothfish)로 나뉜다.

이빨고기는 심해에 사는 어종으로 부레 대신 커다란 지방낭을 가지고 있다. 딱이로는 작은 물고기, 갑각류, 두족류를 섭식하는 육식성 어종으로 범고래, 펭귄, 바다표범의 먹잇감이다.

산란기는 12월~2월의 겨울철이며 산란기에 암컷은 1,000m 깊이의 심해에 알을 낳는다. 이빨고기의 수명은 50년으로 길지만 번식은 자주 하지 않으며, 성장 속도도 느리고 1년에 몇 번 산란하지도 않아 자원관리

에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남극해에서는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시험조업과 과학조사 형태로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사우스조지아와 케르겔렌 제도는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 어업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이빨고기는 생선 중에서도 최고급 생선에 속할 정도로 맛이 좋아 인기가 많다. 남극 주변 심해의 차갑고 높은 수압을 견뎌내 쫄깃한 탄력과 풍부한 지방질의 부드럽고 고소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바다의 한우, 생선계의 꽃등심으로 불린다.

이빨고기는 1993년 ‘66인성호’가 남대서양 어장에 출어하여 세계 최초로 저연승어법으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어획하였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류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가 없었으나, 2년간의 요리법 개발과 이빨고기의 영양가와 맛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지금은 세계 최고급 생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파도와 추위로 접근조차 어려운 남빙양의 수심 2,000m가량의 심해는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은 채 자연 상태로 보존된 태고의 바다로, 이 속에서 영양과 맛이 뛰어난 순백의 이빨고기를 잡은 성과는 세계수산업사의 기념비적인 개척사로 남을만하다.

이빨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9천 82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산물 수출 3위(2022년 기준)로 수출 효자 품목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일식집의 머리 구이로 맛볼 수 있다.



# 대구탕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대구 1마리, 무 1/4개, 콩나물 200g, 두부 1/4모, 호박 1/4개, 양파 1/4개, 미나리 5줄기, 대파 1대,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청주 2T, 소금 1T

※ 대구는 러시아 북서베링해 청정·힘준 수역에서 자연송 조업선이 어획함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대구는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굵은 소금을 뿌려준다.
- ② 무, 두부, 호박, 양파는 1cm 두께로 미나리는 잎을 떼고 4cm 길이로 썬다.
- ③ 콩나물은 머리와 꼬리를 떼서 다듬고, 대파, 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 ④ 냄비에 무와 대구 머리, 청주를 넣고 5분간 끓인다.
- ⑤ 콩나물과 호박, 양파, 대구를 넣고 끓인다.
- ⑥ 소금으로 간을 하고 두부와 대파, 미나리, 홍고추 풋고추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 1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84달러

11월 11일 기준 669달러

11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1.77달러, WTI 가격은 68.04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1.85달러를 기록하였다.

11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69달러로 10월 11일(700달러) 대비 약 4% 하락하였다.

11월 평균(11.1~10.11) 가격은 684달러로 전월 평균(10.1~10.31)인 670달러 대비 약 2% 상승하였다. 전년 11월 평균보다 15% 하락하였고, 전전년 11월과 비교하면 34%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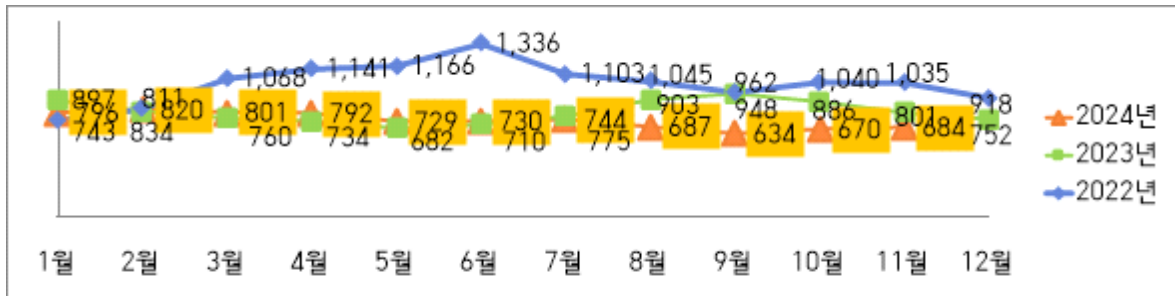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11.11) 가격은 737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8%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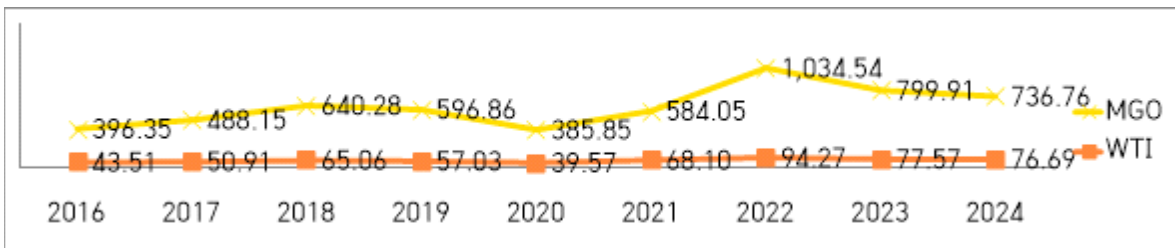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정부에서도 화석 연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오정석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 방향에 힘입어 하방압력이 유지될 전망”이라며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이 뒤따를 경우 하방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 美 대선이 미국 참치 무역에 미칠 영향은?

### 관세 조치, 무역 등 여파 우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강경한 태도로 멕시코가 국경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강행되면 참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타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심지어 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국산 상품에는 60%, 심지어 캠프에서 제안한 100%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에 반대 입장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받아 경제 성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 미국은 참치 통조림 12만 3,067톤을 수입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11만 톤에서 최대 16만 톤이었다. 태국은 미국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물량의 50~60%를 차지하며 작년에는 6만 9,369톤을 미국에 수출하였다. 모든 제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는 참치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수입업체는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의 일부만을 감수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가공업체는 2023년 미국에 1만 5,455톤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지난 5년간 멕시코는 미국에 매년 약 1만 4,000톤에서 1만 7,000톤의 통조림

을 수출하였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서 제안된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의 관세는 이전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참치 무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2018년 트럼프는 중국에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품에 대한 자체 관세로 대응하여 미중 경제 전쟁을 촉발하고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미국 자숙 로인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전 약 1만 8,000톤이던 수입량은 이후 불과 1,678톤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2020년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238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산 참치 유사종의 수입 또한 20%나 감소하였다.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행정부의 일부 관세를 인상하거나 강화하였다. 2023년 동안 미국의 중국산 자숙 로인 수입 실적은 없었고, 통조림 수입량은 약 384톤이었다. 가다랑어 수입만이 5,182톤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월요일에 발표된 미국소매협회(NRF)의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관세로 인하여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제품, 신발, 여행용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NRF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조사된 거의 모든 6개 소매 범주에서 두 자릿수 퍼센트 수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가계 소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5일자



## 중서부태평양 9월 어획량, 약 13만 톤

### 어획량 증가하였으나 전재량은 6% 감소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EEZ와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증가하였다. 9월에 사용된 선박조업일 수제도(이하, VDS) 일수는 전월 대비 127일 증가한 3,799일이었다. PNA EEZ에서의 조업일수 사용은 5% 증가한 3,584일이었다.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 비중은 54%였다(8월 51%). 공해(전체의 6%), 마셜제도(8%), 솔로몬제도(2.3%)에서의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에서는 각각 12%, 11%로 감소하였다(8월 17%, 13%).

대부분의 어업 활동은 중서부태평양 서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쪽 및 남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10월 초의 잠정 수치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다.

선망선단은 9월에 총 12만 9,550톤의 다랑어류를 어획하였다. 9월 어획량은 전월 대비 8% 증가하였고, 모든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전월 대비 5% 증가한 10만 6,500톤이며, 황다랑어 대형, 소형 어획량은 각각 1만 200톤, 1만 752톤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눈다랑어 대형, 소형 어획량 또한 다소 증가하였다.

9월 어업의 상당수가 PNG 수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어획량은 전체의 약 2/3인 8만 4,207톤으로 8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마셜제도 EEZ에서의 어획량은 1만 364톤(전체의 8%)으로 증가하였다. 어업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해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전월의 10%에서 8%로 감소하였다. 솔로몬제도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증가

하였으나 비중은 전체의 1.7%에 그쳤다.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는 어업 노력이 감소하면서 어획량 또한 전체의 7%인 9,068톤으로 감소하였다(8월 2만 3,780톤, 전체의 17%). 기타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팔라우와 토켈라우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보고되지 않았다.

9월 참치 전재량은 9월 어획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8월 대비 6% 감소하였다. 대부분이 전재 활동은 PNG와 미크로네시아 항구에 집중되었다.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34톤으로, 8월 대비 1% 증가하였다. 전년도 9월에 비하면 3% 증가하였다. 7~8월 참치 어획량은 FAD 금어기로 인하여 감소하였으나, 9월에 다소 증가하였다.

9월에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전월 대비 다소 감소한 1만 364톤(전체의 8%로, 일일 어획량은 43톤이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선단은 9월 PNG 수역(41톤)과 마셜제도(36톤) 및 솔로몬제도(25톤)에서 많은 일일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다른 PNA 수역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고, 팔라우와 토켈라우에서는 어획이 보고되지 않았다.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8월 대비 감소한 일일 28톤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2019~2024년 평균에 비하면 26%나 많은 수준이다.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7월 이후 감소하였으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FAD 금어기였다.

황다랑어 대형(9kg 이상)과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각각 2.7톤, 2.8톤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수개월간 대형 황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이 다소 증가 하였으나, 황다랑어 어획량 자체는 2023년 말부터 그리 좋지 못하였다.

9월 PNA에서의 전재량은 총 7만 3,600톤으로, 8월 대비 약 5,000톤 감소하였다. 8월 어획량은 전월 대비 7% 증가하였음에도 전재량은 감소하였다.

보고된 전제 건수는 총 112건으로, 7월의 136건에 비하면 18% 감소하였다. 다만, 일부 선박의 전제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PNG와 마이크로네시아에서의 전제량 비중은 각각 33%와 29%로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다. 조업의 상당수는 PNG 수역에서 행해졌고, 그 결과 마당, 라바울, 라에 등 PNG 항구에서 9월 동안 약 2만 4,000톤이 전제되었다. PNG 항구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많은 어획물이 전제되었다. 9월에 마이크로네시아 항구에서는 2만 3,000톤이 전제되었다.

마셜제도 마주로는 약 1만 3,000톤이 전제되었다. 키리바시, 솔로몬제도에서의 전제 비중은 각각 전체의 12%, 9%를 차지하였다. 투발루에서는 9월 동안 전제 활동이 없었다. 나우루 항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참치 전제 활동이 없었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21일, 22일, 23일

## PNG, MSC 인증 확대 힘입어 다랑어류 어획량 신기록

### 2023년 어획량, 2022년 대비 28% 증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2023년 다랑어류 어획량은 16만 8,000톤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다고 PNG 수산업협회(이하, FIA)가 최신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PNG의 어획량은 해양관리협회의 회(이하, MSC) 인증 취득 후 세계 최대 MSC 인증 참치 어업이라는 지위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어획량 증가는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에 대한 PNG의 접근성 확대에 기인하였다.

75만 톤 이상의 다랑어류가 서식하는 PNA 수역은 이전에는 PNA MSC 인증 어업만이 조업할 수 있었다. FIA 지속가능성·사회적책임 부문 책임자인 마르셀로 이달고에 따르면, 접근성 확대를 통하여 PNG의 참치 산업이 지속가능성 증명을 강화하고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이달고는 지속가능 어업과 어획량 증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PNG가 선박 감시 시스템과 같은 기술에 힘입어 선한 어업 관행과 데

이터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달고에 따르면 다랑어류 어획량 증가는 FIA가 다양한 연구소와 협력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협력에는 생분해성 및 비엄힘 FAD와 같은 혁신 연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 PNG 참치 어업은 비상군(free-school) 조업 또는 비연계(unassociated) 어업이 총어획량의 90%에서 96%를 차지한다.

이달고에 따르면, PNG 참치 어업 부문은 아직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그 외에 PNG 정부는 마당 주에서의 태평양해양 산업지구(PMIZ)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9월에 PNG 지역 언론사는 PNG 정부가 자국의 가공 및 통조림 생산을 강화할 목적으로 PMIZ를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9일



# 日 눈다랑어 9월 수입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도요스 시장 9월 가격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9월 수입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73톤(전년도 동월 대비 거의 동일), 수입액 7억 6,100만 엔(9% 감소), 냉동 수입량 1만 4,319톤(12% 감소), 수입액 129억 7,600만 엔(24% 감소), 가공품 수입량 4,378톤(6% 증가), 수입액 35억 1,800만 엔(3%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679엔(전년도 동월 대비 3% 하락)으로, 8월 가격인 653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은 671엔(2% 하락)으로, 8월 가격인 646엔 대비 상승하면서, 2월부터 반년 가까이 계속된 하락세가 멈췄다.

이 이상 단가가 하락할 경우, 대만 선단의 가동 척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연말을 대비한 양품 비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랑어류의 소비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일본 시장을 노리는 해외 재고도 풍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연말 판매 경쟁을 위한 거래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중해 연안국산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은 운반선의 입고가 끝나, 컨테이너로 반입이 되었다. 2024년 시즌 수입 누계(2023년 11월~2024년 9월)는 2만 6,209톤으로, 2023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다. 2024년 시즌 평균 단가는 2,137엔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3% 하락하였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비용 절감이 요구되어, 내년 시즌 가격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 따르면, 9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의 상장 마릿수는 1만 1,782마리로, 전년도 9월 대비 2%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경·태평양산의 공표된 증가(中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대)는 kg당 1,022엔으로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3개월 빨리 네 자릿수 가격대를 회복하였다. 대서양산의 가격 또한 전년도 9월 대비 4% 상승한 kg당 915엔을 기록하였다.

냉동 눈다랑어 가격은 오봉(일본 8월 중순 연휴) 무렵 시작된 점진적 상승세가 9월까지 이어졌다. 냉동 눈다랑어 서경·태평양산의 공표된 증가는 대부분 kg당 1,000엔대이며, 세 자릿수 가격대도 950엔을 웃도는 수준이다.

해외 어선의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은 7월 하락 이후 “대만·중국선의 조업척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로 인하여, 특히 저품질 제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냉동 눈다랑어 양품 부족도 화두에 올랐다.

운반선 대기 문제의 경우, 9월 말 시점에서 2척의 대기선이 남았다. 호주산 양식 냉동 남방참다랑어 및 지중해산 양식 냉동 참다랑어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관측된다. 다만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은 가득 찬 상태이다. 대만·중국에 일본 시장을 노리는 냉동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도 추측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22일, 11월 8일자



# 日 냉동 참치류 9월 수입 통계 발표

## 한국산 눈다랑어 223톤 수입

< 2024년 9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날개 다랑 어	한국	25	6	34	4	77	23	214	179	74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711	426	865
	바누아투	-	-	121	740	333	104	23	4	-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367	225	377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1,315	834	1,315
황다 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249	851	321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437	511	624
	대만	7,98	970	1,118	1,742	1,172	891	1,259	1,070	602
	팔라핀	-	-	49	-	-	49	49	27	-
	인니	-	-	-	-	-	-	1	-	26
	미국	-	-	-	-	-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139	211	144	207	95
	피지	-	-	13	-	-	-	-	-	-
	카리비시	-	-	-	27	-	17	-	-	5
	미셜제도	-	-	45	-	-	-	-	-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1,211	1,214	518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3,351	3,880	2,192	
눈다 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297	475	223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796	1,126	465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3,255	2,323	2,600
	필리핀	-	-	-	0	-	-	-	-	-
	인니	-	-	-	-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338	1,421	855	370
	바누아투	52	17	378	442	259	665	177	152	146
	기타	110	4	378	169	147	48	80	60	103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6,025	4,991	3,906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58	17	-	-	-	-	-	211
	대만	95	143	1	6	3	-	-	-	9
	호주	-	-	19	-	-	-	200	1,429	1,619
	소계	95	301	37	6	3	-	200	1,429	1,839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1월 8일자



# 대서양 가다랑어 어획량, 2023년에 감소

## 날개다랑어 2023년 어획량 감소

2023년 대서양에서의 다랑어류 어획량은 총 54만 2,379톤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하였다. 2022년은 지난 5개년을 통틀어 주요 상업 다랑어류가 가장 많이 어획된 연도였다.

2023년 대서양 전 업종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4만 9,429톤으로, 전년도 대비 14%나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선망선단 어획량 감소의 영향이었다. 이러한 어획량은 2019년 이후 5개년 중에서 3번째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의 2023년 어획량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참다랑어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4만 1,814톤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한 유일한 주요 다랑어류이다. 참다랑어류 2023년 어획량은 지난 5개년을 통틀어 최고치이다.

역사적으로 가다랑어는 대서양에서 보통 2개의 주요 어업 방식으로 어획되며, 동부 자원의 상당수가 선망 어업으로 어획된다. 반면 미끼선(baitboat)은 서부 자원을 주로 어획한다. 연승 어업의 어획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ICCAT 과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서양 동부 자원 총어획량은 21만 9,874톤이며, 서부 자원 어획량은 2만 9,556톤이다. 선망선단의 2023년 동부 자원 어획량은 스페인, 프랑스 선단 어획량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가나 선단은 동부 자원 4만 9,477톤을 어획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22%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서부 가다랑어 자원의 2023년도 미끼선과 연승 어업 어획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브라질 국적 선단

의 대낚시, 손낚시, 연승 어업 어획량은 1만 8,788톤으로, 2022년도 대비 약 8% 증가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 및 서부 수역에서의 자원은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대서양 북부와 남부의 2023년도 5만 287톤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하였다. 선단이 주로 권고된 한도 미만으로 조업하면서, 날개다랑어 자원량은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ICCAT 데이터에 따르면, 북대서양에서의 어획량은 지난 5년간 3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2만 8,212톤(폐기 30톤 포함)으로 감소하였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국적 트롤선의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중요한 점은 2001년에 ICCAT TAC 제정 이후, 어획량이 대체로 ICCAT의 TAC보다 적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이 수치는 수년에 걸쳐 조정됨).

2023년 날개다랑어 남부 자원(ATS)의 어획량 추산치는 2만 2,075톤(34톤 폐기물 포함)으로, 미끼선 어획량 급감이 관측되었다. 나미비아 선단 어획량은 5,773톤(9% 감소), 남아공 선단 어획량은 2,670톤이다. 연승선 어획량은 대만 선단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1만 895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증가하였다.

ICCAT 과학자들은 보고서에서 대서양 북부와 남부의 자원 상태가 모두 녹색 상태이며 남획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서양 북부 날개다랑어의 TAC는 2022~2023년 3만 7,801톤이었으며 2024~2026년 4만 7,251톤으로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17일, 30일



## 남방참다랑어 쿼터, 자원량 증가로 2만 647톤 확정

### 일본과 호주가 총쿼터의 71% 보유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호주와 일본이 가장 많은 쿼터량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기로 승인하였다.

일본 수산청은 10월 11일 남방 참다랑어의 총허용 어획량이 2025년에 2만 647톤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31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의 국가별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한도는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와 일본이 각각 7,295톤으로 가장 많은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이 각각 1,468톤, 인도네시아가 1,315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국제 협력의 하나로 매년 쿼터의 일부를 인도네시아에 21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27톤을 양도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원 회복 조짐이 보이자,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별 쿼터를 이전 3년 대비 17% 증량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올해 회의에서는 이 결정을 재확인하여 더 높은 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CCSBT 연례 회의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급 초밥과 횡감으로 인기가 높은 남방 참다랑어는 주로 남반구의 고위도 수역에서 서식한다.

참고로, 도쿄 도요스 시장의 냉동 남방참다랑어 도매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kg당 2,000~2,500엔(13.41~16.76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참다랑어 가격은 3,000~4,000엔/kg, 눈다랑어는 1,100~1,200엔/kg 사이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5일

Total Allowable Catch for Southern Bluefin Tuna

Country/Region	(in metric ton)	
	2024-2026	2021-2023
Japan	7,295	6,245
Australia	7,295	6,245
South Korea	1,468	1,257
Taiwan	1,468	1,257
Indonesia	1,315	1,095
New Zealand	1,288	1,102
South Africa	500	428
EU	13	11
Research Quota	6	6
<b>Total</b>	<b>20,647</b>	<b>17,647</b>

Source: Japan's Fisheries Agency



## 머스크社, 변동성이 운임가격에 미치는 영향 설명

### “현 상황이 뉴노멀 될 수도” 우려

올해 전 세계 참치 업계는 많은 혼란을 경험하였다. 운임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약 1년 전에 시작된 홍해 위기는 여전히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박 운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대 해운 기업 중 하나인 덴마크 머스크(Maersk)사의 어류 및 수산물 화물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투 바포드(Thue Barford)에 따르면 현 상황은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도 있다.

바포드는 홍해 사태로 인하여 운임이 2~3배나 올랐다고 지적하였다. 바포드는 “2024년 새해 무렵에는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약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 가격은 2024년 초부터 치솟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후티 반군은 작년 10월 홍해를 항해하는 컨테이너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미, 유럽, 아시아 간 최단 무역로에 영향을 미쳐 선박이 희망봉을 우회하도록 만들면서 항해 기간비용 증가를 유발하였다.

#### 〈상승 요인〉

해운사에는 선박 이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주요 프로토콜이 있다. 하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운송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가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바포드는 올해 초 해상 운임 가격을 끌어올린 몇 가지 요인을 설명하였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이 중동 위기(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홍해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EU 소매업체들은 참치 통조림을 포함한 상품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맞추기 위해 판매자들은 보

통 6월이나 7월경에 아시아에서 상품을 발송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유럽이나 다른 시장으로의 운송 기간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4월부터 이러한 추세가 시작되었다. 이 모든 요인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화물 가격이 로켓처럼 치솟았다.”라고 바포드는 말하였다.

3월과 4월경에는 남아프리카를 우회하며 항해하였기 때문에 해운 이동 시간이 증가하였고 선박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졌다. 머스크사 측은 “유럽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량이 100%가 아닌 항로에서 주요 항로로 선박을 이동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 〈운임, 최고점에 도달〉

바포드는 “유럽의 화물은 평년 선적 기간인 7~9월보다 이른 4~6월에 선적되면서 이른 크리스마스 대비 물량 폭주가 끝났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운임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이다.”라고 말하였다.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는 4월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 3,733.80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겪으며 9월 말에 2,135.08달러를 기록하였다. 11월 1일에는 2,303.44달러였다.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드루리세계컨테이너지수(이하, WCI)는 4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중순에 5,937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으로는 3,213달러에 마감되었다. 이는 큰 폭의 하락이나, 여전히 2019년(팬데믹 이전) 평균인 1,420달러



보다 126%나 더 높다.

바포드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다른 우려를 안고 있다. “미국 무역은 안정적이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관세가 도입된다면 아시아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제품을 운송하려는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미국 무역은 다소 강세이며 유럽 정도로 운임이 대폭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바포드는 설명하였다.

에콰도르에서의 냉동 화물(냉동 자숙로인 또는 원어) 운임은 참치 부문의 표준 지수 역할을 한다. 바포드는 “에콰도르와 세이셸의 운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북미로 향하는 운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어획량이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참치 화물 운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바포드는 전 세계 참치 부문이 해상 운송 외에도 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황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홍해 사태는 ‘뉴노멀’이다.”

그는 현재 운송 상황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였다. 동-서 항로 시장은 유럽과 미국으로 향하는 이른 ‘크리스마스 러시’ 이후 서서히 정상화 중이다. 미국 관세 인상 여부는 이번 대선 승자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10% 부과,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등 여러 관세 도입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 및 화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출처: Atuna, 2024년 11월 7일자

## 스페인 참치 선망선, 한국 기업 동원산업에 매각

### SNS를 통하여 조업선의 안전 항해와 풍어 기원

길이 75m, 폭 13.6m, 용적 1,890m<sup>3</sup>의 참치 선망선 플라야 데 바키오(Playa de Bakio)가 한국 기업 동원산업에 매각되었다.

이번 거래는 알비노 모란 선박 중개회사(Albino Moran Shipbrokers)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다고 이 회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밝혔다.

발렌시아가 조선소가 건조한 플라야 데 바키오는 스페인 버메오에 본사를 둔 어업 회사 페바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서울에 본사를 둔 동원산업은 15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동원그룹에 속해 있다. 김재철 회

장이 1969년에 설립하였다.

알비노 모란 선박 중개업체는 소셜 미디어 성명을 통하여 이번 거래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참치 선망선 플라야 데 바키오가 알비노 모란 선박중개사를 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대표하여 매각되었다. 20년 넘게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매도자인 페바사와 매수자인 동원산업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

“거래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고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두 회사 모두에게 감사한다. 새 주인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24일자



## 중국의 대 EU 참치 수출 급증으로 경쟁국 긴장 국가 보조금과 값싼 노동 조건으로 경쟁 어려워

“유럽 규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생산된 값싼 참치는 EU 참치 생산업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참치 소비 확산이 더디었기에 중국의 대규모 참치 어선은 어획물 판매를 위해 EU와 같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경쟁업체들은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감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다.

EU의 통조림 업계는 중국산 참치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참치 시장 점유율을 9%에서 24%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에콰도르는 점유율이 32%에서 26%로 감소하였다.

에콰도르 국립 수산업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은 해당 기간 참치 로인을 톤당 4,200달러에 판매하였는데, 이는 에콰도르의 평균 선적 가격보다 1,200달러 더 저렴하였다.

중국은 참치 제품의 국경 진입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EU의 자율 관세 할당(ATQ)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U의 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3만 5,000톤의 참치를 무관세로 EU에 수출하였다.

중국산 참치가 급증하자 일부 EU 기반 참치 생산업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참치 생산자 대표 단체 OPAGAC의 훌리오 모론 사무총장은 “유럽 규정보다 낮은 기준, 특히 참치 어선의 노동 조건으로 생산된 값싼 참치와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참치 선단 및 가공 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으므로 EU 참치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SeafoodSource에 말하였다. “또한, 현재의 표시 요건은 참치 통조림에 참치를 잡은 선박의 국적을 표시가 의무가 아니므로 EU 소비자는 참치가 캔에 담긴 후에는 참치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

모론은 또한 중국 참치 조업선은 유럽연합 선단에는 제공되지 않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10여 년 전 유럽연합의 공동 어업 정책이 개혁된 이후 유럽연합 조업선은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중국 어업 및 가공 산업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10월 17일자



## 중동 분쟁,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 성장 촉진

### 편리성과 건강 지향, 사료 활용 증가 등의 영향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가다랑어 참치 가격이 전월 대비 급등하면서 태국의 참치 통조림 부문이 주목할 만한 경제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태국산 참치 통조림을 비롯한 필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의 대중용 참치 통조림 수출이 20.7% 증가하였다. 태국 무역 정책 및 전략 사무소의 푼푼 나야나파콘 국장에 따르면 9개월 동안 659억 8천만 바트(19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아세안 나우(ASEAN Now)가 보도하였다.

업계 소식통은 언더커런트 뉴스에 중동 지역의 참치와 정어리 수요가 현재 강세를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팔레스타인어로의 배송에 의한 것이라고 경시하면서 가자 지구로의 물류가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다.

“분쟁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호황이 발생하였다.”라고 후자의 소식통은 지적하였다.

한편,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낚시 가격은 전월 대비 톤당 1,530~1,540달러로 상승해 지난월부터 시작된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이번 주 언더커런트에 전하였다.

지난주 방콕의 가격 상승이 견고한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어획량 감소 때문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서태평양에서 아시아 선단의 어획량은 하루 평균 약 20~27톤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방콕에서는 에콰도르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550달러에 거래되었고, 일부 판매는 1,600달러에 보고되는 등 대형 통조림의 경우 여전히 1,500달러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의 경우 필리핀 국적 선박의 인도 가격이 톤당 1,6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알렸다.

대서양 어획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양 어획량도 다소 감소하였다. 세이셸의 가다랑어 가격은 현지 통조림 업체들이 가격을 톤당 1,400유로 이하로 낮추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약 1,425~1,450유로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태국의 참치 수출 호황은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시장에서 통조림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편리성과 건강 지향적인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태국의 참치는 식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서도 중요한 원료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5일자



# MSC “지속가능 참치 수산물 수요 성장 중”

## 2023/2024 연례 보고서 발표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참치 및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MSC 프로그램과 연계된 어업의 수는 2023/2024년 동안 증가하였다. 또한 MSC 참치 제품 매출 및 지속가능 참치의 양도 증가하였다.

루퍼트 하우스 MSC CEO는 고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MSC가 2024년에 의뢰한 독립 소비자 조사가 해당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2만 명 이상의 수산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의 소비자가 남획을 우려한다고 답변하였고, 약 2/3의 소비자가 해양 보호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이유로 식습관을 바꾸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응답자의 약 1/4은 수산물이 해양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수산물 섭취를 늘릴 것이라고 답하였다.

MSC 프로그램과 연관된 어업의 숫자는 2022~2023년 동안 674개였으나, 2023~2024년 동안 716개로 증가하였다. 해당 어업의 전체 생산량 합계는 1,548만 톤으로, 2022~2023년 대비 약 3% 증가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2023~2024년 동안 전체 해양 자연산 어획량의 19.3%가 MSC 인증 어업에서 나왔다고 강조하였다.

2023/2024년도(2024년 3월까지)까지의 MSC 인증 참치 및 수산 제품의 매출량은 128만 톤이며, 매출액은 13억 4,000만 달러이다. 세계적으로 2만

190종의 제품이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었다. 판매된 제품의 상당수가 냉동이며, 통조림 제품, 냉장 제품 순으로 뒤를 이었다. MSC 인증 수산물 통조림 제품의 매출량은 9% 성장하였다.

특히 국가별 시장 또한 미국(5.2%), 프랑스(5.8%), 이탈리아(10.3%), 폴란드(15.7%)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부 유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곳은 아시아로, 한국에서의 매출이 35%, 중국에서의 매출이 20% 성장하였다.

MSC 어업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것은 흰살생선류이며, 참치류는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다. MSC 프로그램 하에 약 280만 톤의 참치류가 어획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자연산 참치 어획량의 약 53.3%를 점유하는 수준이다. 2023/2024년 동안, MSC 인증 참치의 매출량은 총 23만 5,805톤이다.

보고서는 또한 MSC 인증 참치의 물량이 35%로 급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8개 참치 어업이 첫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에는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선망 어업을 하는 일본의 20번째 인증 어업인 큐와메이호도 포함된다.

MSC는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가다랑어 어획 전략을 채택한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어업 관리 진전을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16일



## 에콰도르 1~8월 참치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 2023년 전체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

에콰도르참치산업가공업상공회(이하, CEIPA)는 최근 2024년 1~8월 동안의 수출 내역을 발표하였다. 가공업체가 올해 1~8월에 수출한 참치 제품의 총수출액은 10억 1,000만 달러로, 2023년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자, 2023년도 전체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에콰도르가 수출한 참치 제품의 대부분은 EU로 향하였다. EU의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 수입액은 4억 5,730만 달러이며, 자숙 로인 수입액은 1억 4,989만 달러(에콰도르 자숙 로인 수출의 94%)이다. 에콰도르산 참치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시장은 라틴아메리카로, 이들의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 수입액은 1억 8,287달러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에콰도르의 자숙 로인 수출의 5.5%를 차지하였다. 영국

의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 수입액은 1억 23만 달러이다. 미국은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 7,587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였고, 자숙 로인도 수입하였다.

에콰도르의 2024년 상반기 동안 EU행 수출량은 36% 증가한 5만 6,704톤이다. CEIPA에 따르면 8월까지 EU에 수출된 가공 참치 제품(통조림, 자숙 로인 및 그 외 가공품 포함)의 양은 12만 2,417톤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에콰도르와 영국 간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 따라 참치 제품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었다. 에콰도르 가공업체의 영국행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16일

## 스페인 참치 협회, 열대 참치 대상 MSC 인증

### 향후 2년 내 100% 인증 목표

스페인의 어업 협회 AGAC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의 모든 열대 참치 어족에 대해 해양관리협회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AGAC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및 모든 참치 조업 구역의 날개다랑어에 대해 MSC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이번 인증으로 AGAC는 이제 MSC의 지속 가능한 어업 표준에 따라 인증된 총 31만 2,000톤의 참치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약 1만

8,000톤의 인증된 눈다랑어도 포함된다. 선단은 43개의 인증된 선망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어획량의 80% 이상이 MSC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2년 이내에 나머지 어획량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증을 향한 여정은 2020년에 시작되었다. 총 참치 어획량은 약 37만톤으로, AGAC는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7일자



## EU 2024년 상반기 통조림 수입량 약 26만 톤 에콰도르산 36% 대폭 증가

2024년 상반기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4~6월 수입량은 다소 증가하였다.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에콰도르와 베트남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인도양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24년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26만 2,566톤으로, 전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총수입액은 14억 7,000만 유로(약 16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올해 첫 3개월 수입량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4~6월 수입 실적은 매우 좋았고 1~3월의 수입 감소를 만회하였다.

EU 외부 국가로부터 수입한 양은 2% 증가한 15만 3,384톤으로 상반기 수입량의 58.4%를 차지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7억 5,526만 유로(8억 2,78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 감소하였다.

EU는 에콰도르산 통조림을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5만 6,704톤 수입하였다. 에콰도르산의 평균 단가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톤당 4,729유로로 타 수출국 대비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었다. 동부태평양에서 많은 가다랑어가 어획되면서 어가가 하락하였으나,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하여 상쇄되었다.

베트남산 수입량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산 수입량은 2,464톤(29%) 증가한 1만 1,064톤이다. 평균 단가는 톤당 4,102유로로 전년도 대비 4%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수출국을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5월까지 하락세였으나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하여 운송 비용이 상승하였다.

인도양의 열악한 어업 상황은 통조림 무역에도 반영되었다. IOT 공장이 위치한 세이셸산의 수입량은 1/4분기 부진한 이후 일부 회복되었으나, 상반기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20% 감소한 1만 2,971톤이었다. 평균 단가는 톤당 6,292유로로 3% 하락하였다.

Princes의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의 수입량은 35% 감소한 9,840톤이며, 평균 단가는 6% 상승한 톤당 5,098유로이다.

두 인도양 국가의 무역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방해を受け, 이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였다.

파푸아뉴기니산의 수입량은 이미 1/4분기에 감소하였고, 6월까지 이를 메우지 못하며 전년대비 20% 감소한 9,278톤을 기록하였다.

필리핀산 평균 단가는 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전년도 수준인 1만 2,277톤이었다.

이탈리아 Airone사의 공장과 Scodi社가 소유한 Thunnus Overseas 그룹의 공장이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산의 단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입량은 38% 감소한 6,701톤이었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097톤 감소한 10만 9,182톤이며, 평균 가격은 326유로(357.31달러) 더 상승한 톤당 6,556유로이다. 스페인은 EU 내 주요 공급국이었으나, 스페인산의 수입량은 올해 에콰도르에 추월당하였다.

한편, 스페인의 2024년 상반기 동안 EU 외부 국가로부터의 참치 통조림 수입은 13% 증가한 반면,



같은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스페인의 2024년 상반기 통조림 수입량은 3만 548톤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다. 모리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에콰도르산의 수입량은 27% 증가한 3,681톤이다. 가격은 톤당 4,541유로로, 전년도 대비 1% 하락하였다. 가격을 감안하면 에콰도르산은 전부 가다랑어 제품으로 추측된다.

뉴 프린스 그룹 산하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의 수입량은 50%나 감소한 1,648톤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은 스페인을 상대로 좋은 무역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산의 수입량은 전년도 동

기 대비 약 3배로 증가한 1,695톤이나, 평균 가격은 낮은 편인 톤당 2,636유로였다. 이러한 물량의 대부분은 스페인 수입업체가 저렴한 아시아산 제품으로 전환한 시기인 올해 1/4분기에 수입되었다.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증가는 스페인 통조림 업계 협회인 Anfaco 등의 우려를 낳았고, 이들은 현재 협상 중인 EU-인도네시아 FTA 시행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중국산 수입량은 1/4분기 동안 1,459톤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는 거래 실적이 없었다. 스페인의 상반기 중국산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867톤 증가하였고, 가격은 원산지국을 통틀어 가장 저렴한 수준인 톤당 2,548유로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7일, 10월 29일

## 포르투갈, 어획 할당량 증량 주장

### 눈다랑어 쿼터 7만 3,000톤 설정 주장

포르투갈은 룩셈부르크에서 눈다랑어 어획량을 7만 3,000톤으로 늘리고 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제도에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우디아 몬테이로 데 아귀아르(Claudia Monteiro de Aguiar) 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을 7만 3,000톤으로 늘리고, 전통 어업선에 특정 쿼터 할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장관은 유럽연합 농업 및 수산 장관 회의에서 전통 어선은 “매우 선별적인 것으로 알려진 매우 특정한 어업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이 경우, 장관은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제도에서 어업의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는” 생선인 눈다랑어와 참다랑어에 대한 구체적인 쿼터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AAT)에서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는 국가 선단의 어획량 증가와 함께 황새치의 새로운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대서양 어획량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협상을 준비 중인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양자 회담을 통해 협상 전략을 정하였다.

특히 멸치 조업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국무장관은 리스본과 마드리드가 브뤼셀의 제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롭다고 생각하는 멸치 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도미 어획량에 대한 브뤼셀의 제안도 리스본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2023년과 2024년에 EU 수역과 10 하위 수역 내 국제 수역에서 60만 톤의 할당량을 할당받았다.

\* 출처: The Portugal News, 2024년 10월 22일자



## 美 2023년 연승선단 어획량선단 수 증가

### 다랑어새치 등 1만 1,359톤 어획

2023년 미국 및 미국령 국적 연승선단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관할 수역에서의 다랑어류, 새치 등 고도회유성어종(이하, HMS) 어획량은 전체 어종 중 2위였다. 눈다랑어는 HMS 어종 전체 어획량의 46%를 차지하였다.

미국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승선단은 주로 하와이에서 조업하였고, 아메리칸사모아에서 일부가 조업하였으며, 일부 소수 선단은 캘리포니아에서 조업하였다. 이 선단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인 1만 1,359톤의 HMS 어종을 어획하였다.

다랑어류 연간 어획량의 경우, 지난 5년을 통틀어서 번째로 많은 양이 어획되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5,164톤이며, 이 중 대부분이 하와이 선단, 일부는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이 어획하였다. 날개다랑어는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이 1,132톤(남태평양, 북태평양 합산)을 어획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도 어획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눈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황다랑어는 2019년 이후 미국 선단이 두 번째로 많이 어획한 어종이었다. 2023년 황다랑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의 어획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2023년 미국 연승선단의 척수는 155척이며, 이 중 145척은 하와이에 기지를 두고 북태평양에서 조업하였다. 아메리칸사모아 선단은 2023년에 10척만이 조업하였다.

50톤 이하의 소형 연승선은 수년에 걸쳐 급락하였다. 2019년에는 50톤 이하 소형 연승선이 10척이었으나, 2023년에는 3척으로 감소하였다. 51~200톤급 대형선은 증가세로, 2019년 146척에서 2023년 151척으로 증가하면서 어획량도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10일

## 몰디브의 어류 수출 크게 감소

### 가다랑어 60% 등 어류 수출 45% 이상 감소

몰디브 금융관리국(MM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의 5만 8,761.4톤에서 2024년 9개월간 3만 2,157.4톤의 생선을 수출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감소한 수치이다.

월별 생선 수출 통계:

1월 4,475톤 / 2월 6,051톤 / 3월 3,787톤 / 4월 4,746톤 / 5월 4,404톤 / 6월 3,495톤 / 7월 1,113톤 / 8월: 2,168톤 / 9월: 1,916톤

다양한 어종 중 가다랑어는 9월 말까지 1만 8,987톤이 수출되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4만 7,253톤의 가다랑어를 수출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정도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외에 몰디브는 6,966톤의 황다랑어와 4,501톤의 통조림 및 삶은 생선을 수출하였다.

\* 출처: Avas.mv, 2024년 11월 4일자



## 환경정의재단, EU에 中 참치 수입 통제 강화 촉구

### 이해관계 데이터 수집 및 무관용 정책 등 요구

국제 NGO 환경정의재단(이하, EJF)이 9월 발표한 '폭로: 수산물 강대국 중국('Uncovered: China - Seafood Superpower)'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EU에 중국산 수산물 수입 통제 강화를 요구하였다.

EJF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수산물 수입의 투명성과 엄격한 통제의 지원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해 달라고 유럽의회에 촉구하였다.

EJF는 강제 노동 연루 선박과 관련이 있는 수산물이 EU 공급망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산물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산물 시장으로서 EU는 모범을 보이면서 부정에 연루된 모든 제품과 이해관계자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EJF에 따르면, EU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검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원양선단의 활동은 어류 개체군과 연안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JF는 "이러한 현상이 남방 국가의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원하는 EU 소비자,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한 EU 어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주장하였다.

EJF는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EU 수산물 수입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막는 것이다.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증이 개선되어야 하며, IUU 어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식별해야 한다.

둘째, EU는 비용 효율적인 투명성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IUU 어업 연루 선박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로 소유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 EU 회원국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불법 어업 및 강제 노동 연루 수산물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24일

## NGO, 대만 FCF社 공급망 내 환경 파괴·인권 침해 주장

### FCF 해당 주장 부인

NGO 단체 Shark Guardian은 최근 발표한 "공허한 약속, 공허한 바다(Empty Promises, Empty Oceans)"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FCF의 공개 서약과 이들의 실제 관행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몇 년 동안 FCF와 제휴한 선박에서 취약계층 학대, 신체적 및 성적 폭력, 신분증 압류 등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

는 선원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FCF는 환경 영향 및 노동 관행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의향을 표명하였으나, FCF는 제기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규제 기관, 선박 운전자 및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30일자



# 뉴욕타임스, 참치 건강 영향지속가능성 분석 기사 발표

## 참치 건강상 이점 및 지속가능성 장점 언급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이자 세계 최대 디지털 뉴스 플랫폼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이하, NYT)는 9월 말 '참치에 대한 진실: 참치와 다른 수산물의 수은에 대해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는 참치 섭취의 건강상 이점과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셀레늄이 생선의 수은 효과를 중화한다는 점이나 지속 가능한 참치가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중요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10년 이상 어업 산업에 대해 보도해 온 에릭 밴스(Erik Vance)가 작성하였다. 이 기사는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였다.

### 〈건강상 이점 관련 탐구〉

참치의 건강상 이점은 해당 기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화제였다. 해당 기사는 어류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등 영양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사는 어류 섭취의 건강상 가장 큰 단점이 수은임을 언급하였으나, 다만 미국에서 수은 중독 사례는 매우 드물다. 기사는 중금속이 작은 유기체로부터 참치, 새치, 상어 등 상위 포식종에 흡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참치가 수은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셀

레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어종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참치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답은 모호하다. 수은의 양은 어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참치는 15개 종이 있으며, 이들 모두 저녁 식사 메뉴에 올라간다.” 가다랑어는 가장 수은이 적은 종이며, 반면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는 그보다 3배나 함유량이 많다.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는 그보다도 많다.

밴스 기사는 미국식약청(이하, FDA)이 임산부와 아동에게 참치 섭취를 권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임산부의 참치 섭취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였으나, NYT 기사는 참치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지 않았으며, 참치 섭취가 주는 뇌 건강상의 이점이 참치 섭취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지속가능성 측면〉

참치와 관련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지속가능성 측면이다. 해당 기사는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논란이 된 돌고래 혼획 문제가 “다년간의 운동 및 개혁 덕분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참치 어업 방식 및 여러 바다의 참치 자원 상태 또한 기사에서 강조되었다. 밴스 기사는 식사의 환경 관련 영향을 염두에 두는 소비자가 참치 통조림의 인증 라벨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참치가 통조림 1개당

2~3달러가 더 비싸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Atuna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MSC 인증을 받은 월마트의 'Great Value' 5온스(142g) 참치 통조림 가격이 0.92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0월 4일

## 日 연구진, 점다랑어 잡종에서 참다랑어 정자 생산 성공 참다랑어 양식 기간 및 비용 절감 가능

도쿄해양대학 학술연구원 생물자원학부문 요시자키 고로 교수 등의 연구그룹이 고등어과 점다랑어의 중간잡종으로부터 참다랑어 정자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참다랑어는 성숙하기까지 통상 4년 이상이 걸리며, 친어(親魚)는 50~100kg까지 대형화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나 노동력, 먹이 등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 개시의 목적이다.

참다랑어와 같은 고등어과이자 산란 수온도 비슷한 점다랑어를 대리 어미 고기로 삼아 태평양 참다랑어의 생식 줄기세포를 포함한 고환 세포 혼합물을 이식한 결과, 생식 줄기세포의 이식 효율은 좋았으나 치어기부터 유어기까지의 생존율이 낮고, 세포 이식 후 성숙 연령까지 생존하는 개체가 적어, 참다랑어의 정자 생산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다른 종을 부모로 가진 다음

세대는 부모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질을 갖췄다는 '잡종 강세' 현상을 채용하였다. 태평양산과 대서양산 점다랑어의 잡종을 이용하여 동일한 이식을 실시한 결과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8개월 만에 체중 1kg 정도에 달한 수컷 68마리가 성숙하였으며, 그중 9마리가 참다랑어 정자를 생산하였다.

또한 잡종 개체의 수컷과 암컷을 수조 내에서 교배시켜 태어난 차세대의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다랑어 유전자를 지닌 차세대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요시자키 교수는 "연구에 2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잡종 점다랑어가 수정 능력을 가진 기능적인 참다랑어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라고 말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참치류의 양식 생산의 효율화와 품종 개량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미나토신문, 2024년 10월 4일



# 페루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해외 수요 증가

## 내년 칠레산 오징어도 경쟁 격화 예상돼

페루산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의 올해 어획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해외 수요 강세 때문에 일본으로의 공급이 축소하여 일본 국내 시장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페루 대왕오징어는 50만 톤 내외로 생산되는 안정적인 자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도 최근 3년간 냉동 원료로서 연간 2만~2만 3,000톤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구이, 젓갈을 비롯하여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짬 제품으로도 활용되는 페루산 오징어는 일본 자국산 오징어 어획량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귀중한 오징어 원료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페루 현지 조업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악화하였다. 엘니뇨 현상이 영향을 있으나, 올해 들어 바닥을 모르고 감소하면서 1~7월 어획량은 지난해 상반기의 1/3 수준인 14만 5,000톤 미만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연간 어획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25만 톤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관계자는 “근 수년간 어획량이 이만큼 나뉠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중국은 적도 부근의 공해에서 소형 빨강오징어(무라사키오징어, 적도오징어)를 어획한다. 생산 규모는 연간 30만 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는 “심각한 어획 부진”이라고 전해졌다. 또 다른 생산국인 칠레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잡혔으나 10만 톤 전후 수준으로 물량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나 유럽 등지로부터 페루산 수요가 증가하였다. 한정된 오징어 물량을 다투는 구도 속에서 대일 공급은 줄어들었고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 일본 자국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한 와중, 일종의 생명줄 격이었던 대왕오징어 물량까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본 가공업체는 타격을 입었다.

가공업체 측은 “(대왕오징어의) 판매 제안이 전혀 오지 않는다. 그나마 오는 제안들도 가격이 비싸다”라고 토로하였다. 현재 일본 내 시장에서 호가하는 가격은 필렛, 귀 모두 kg당 400엔 이상으로, “필렛은 500엔에 가깝다”라는 말도 나오는 등,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다.

다만 한 가공업체 측은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오르기 전이었던 연초에 어느 정도 매입했다.”라고 말하는 등, 가공업체들이 일정 수준 재고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오징어 원료가 바닥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 통계에 의하면 1~8월의 페루로부터의 냉동 오징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적지만 1만 톤 이상을 확보하였고, 특히 칠레로부터 30% 증가한 7,800톤을 수입하는 등 대체 구도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단가는 페루산이 40% 상승한 393엔, 칠레산이 18% 상승한 346엔이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오징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 모두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다음 여기에는 칠레산 오징어 수입 경쟁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관계자는 “(일본 국내는) 아직 오징어 재고가 있으나, 내년부터 재고가 줄어들면서 (어획량 감소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15일



## 日, 해외 오징어 어업 동향 보도

### 페루 오징어 어획량 부진·아르헨티나 어획량 호조 등

일본 오징어 가공업체가 오랫동안 핵심적 원료로 활용해 온 페루산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가 이번 어기 동안 어획 부진에 빠져 있다. 무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7월 어획은 14만 톤대 중반으로 어획량이 호조였던 지난해의 3분의 1 이하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연간 총어획량은 25만 톤 전후가 될 전망으로, 이는 평년 수준인 50만 톤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렇게 어획량이 부족한 것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하였다.

중국이 남미 연안의 적도 부근에서 어획하는 빨강오징어(적도오징어)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심각한 어획량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페루산 오징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페루산 오징어 수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1~8월 페루산 냉동 오징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만 500톤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10만 톤이 어획된 칠레산의 수입이 30% 정도 증가하여 페루산 수입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으나, 오징어 전체 수입량은 20% 가까이 감소하였다.

일본 가공업체 측에서는 “올해는 전혀 제안이 나오지 않으며,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높다”라고 토로하였다. 현재 일본 국내 가격은 필렛, 귀 모두 kg당

400엔 이상이며, 특히 필렛은 kg당 500엔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40~60% 상승한 수준이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아직 작년의 재고가 남아 있으나, 재고가 없어지는 내년부터 여파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남미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의 경우, 아르헨티나 200해리 내에서의 어획량이 약 15만 톤을 기록했지만, 포클랜드제도 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대만 선단은 12만 톤의 좋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300g 이상의 대형 개체 위주이지만, 그 외에 마땅한 오징어 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목받아, 1~8월 대만산 오징어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배인 7,900톤으로 증가하였다. 일렉스오징어는 대만산과 아르헨티나산을 모두 포함하여 젓갈, 초밥류, 말린 오징어용 원료로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렉스오징어도 저렴한 원료는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체 관계자는 “가공업체가 원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본 가공업체는 앞으로도 수입산 오징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어획 상황이나 타국의 오징어 수요, 환율 동향 등에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환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21일



## 페루 1~7월 오징어 어획량 14만 5,411톤

### 대체품 일렉스 오징어 중국 가격 상승세

일본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의 1~7월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 어획량은 14만 5,411톤이다. 어획량이 많았던 작년 상반기와는 달리, 올해 1~7월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70%나 감소하였다. 다만 저조한 어획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원료 가격은 상승 기조이다.

칠레 EEZ 내에서의 대왕오징어는 예년 10만 톤 전후가 어획되나, 올해는 8만 5,000톤 전후이다. 무역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페루에서 어획량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에 새 어기가 시작되는 칠레산 원료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현재 살오징어의 대체 원료가 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의 가격이 상승 중이다. 대

만 선단이 조업하는 포클랜드제도에서는 어획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6~7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중국 선단의 살오징어 어획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상승하였다고 무역회사 소식통은 말하였다.

또한, 9월 하순 시점의 소형 빨강오징어(적도오징어) 원료 가격은 전월부터 이어진 높은 가격대가 계속되었다. 무역회사 소식통은 “1~2kg, 2~4kg 사이즈는 재고가 적다”라고 언급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8월 동안 일본의 냉동 살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 대왕오징어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5만 9,130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0월 17일

## 아르헨티나, 일렉스 수출 급감으로 9월 수출 실적 타격

### 9월 일렉스 수출 전년 대비 89% 급락

아르헨티나의 9월 수산물 수출 실적은 수출량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4만 5,200톤, 수출액 기준으로 6% 감소한 1억 9,960만 달러이다.

이러한 하락은 일렉스 오징어 수출 급감이 주원인이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업부에 따르면 일렉스 오징어의 9월 수출량은 89% 감소한 1,179톤이며, 수출액은 86% 감소한 350만 달러이다.

반대로 헤이크(hake) 수출 실적은 16% 증가한 1만 3,022톤, 수출액 기준 16% 증가한 3,2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평균 수출 가격은 2% 상승한

kg당 2.49달러였다.

아르헨티나 수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 중에서, 스페인 시장은 수출량 1만 1,817t, 수출액 6,140만 달러 상당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9월 전체 수출 비중의 26%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이탈리아로 수출량 6,130톤, 수출액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0%, 82% 증가하였다. 일본 시장은 수출량 2,640톤, 수출액 1,440만 달러로, 양은 15%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1% 증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1일자



## 러, 2025년 명태 쿼터 246만 톤

### 약 20만 톤 증가

러연방 농업부는 내년에 해양 어업 지역에서 허용되는 총어획량을 승인하였다. 이 명령은 다양한 유형의 어업에서 잡을 수 있는 양을 결정한다.

농업부는 내륙 해역,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러시아 대륙붕 및 카스피해의 2025년 TAC는 2024년 10월 2일, 농업부 명령 567 No. 2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총허용 어획량은 조업 수역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어종인 명태의 2025년 총허용 어획량은 246만 톤이다. 호호츠크해 북부에서는 약 100만 톤의 명태 어획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북호호츠크해 및 서부 캄차카 하부수역에서 각각 36만 1,800톤, 캄차카-쿠릴 하부수역 28만 1,400톤(캄차카 하부수역 간 쿼터 재분배는 총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이 허용된다.

올해 극동 수역의 명태 TAC는 229만 5,000톤 이상이었다.

이 명령은 또한 청어, 대구, 게 및 기타 중요한 러시아 어업의 2025년 총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러시아 수산청은 일본 홋카이도와 접한 동사할린 수역의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 자원'인 청어의

2025년 어획 권고량을 발표하였다. 해당 수역의 청어는 비 TAC 어종이다.

한편, 남쿠릴, 서사할린, 그리고 연해 지방의 각 수역의 청어는 TAC 어종으로, 먼저 2025년의 설정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들을 취합하면 4개 수역의 어획 한도는 약 3만 7,800톤으로, 전년도인 올해 한도 대비 33.5% 증가하였다.

사할린주 어업계에 따르면 사할린-홋카이도 계군의 청어의 각 지구 연안 앞바다로의 내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자원의 본격적인 생산과 연안에서의 처리에 대한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 러시아 해양 어업 연구소 사할린 지부 측에서도 사할린 남서부 앞바다에서 해당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이동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일본 EEZ와 공유하는 자원인 사할린-홋카이도 계군 청어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2025년 서사할린 수역의 TAC 6,140톤 중 6,040톤이 사할린-홋카이도 계군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0월 10일,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11월 5일자



## 2025년 러 수역 수생생물자원 TAC 승인

361만 5,000톤으로 16만 9,500톤 증가

러연방 농업부는 2025년까지 러시아 해양 수역에서 허용되는 수생 생물자원의 총어획량을 승인하였다. 이 명령은 어종별 어획량과 어업 수역별 어획량을 결정한다. 2025년 총허용 어획량은 361만 5,000톤으로 올해보다 16만 9,500톤이 더 많다.

수역별 해양 수산 생물 자원 생산량 분포는 전통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반복하였다. 극동수역이 95.7%(346만 1,000톤)로 TAC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부 수역 7만 6,400톤, 북부 수역 5만 6,100톤, 볼가-카스피 수역 2만 1,400톤 등 기타 수역이 4.3%를 차지한다.

2025년 극동 지역의 주요 상업 어종인 명태의 TAC는 2024년보다 16만 5천 톤이 늘어난 246만

1천 톤으로, 전체 TAC의 약 68.1%이다.

명태 외에도 태평양 청어 40만 7,900톤(11.3%), 대구 14만 600톤(3.9%) 등이 주요 어종에 포함한다. 다른 주요 상업 어종으로는 오징어 11만 톤(3.0%), 가자미 6만 1,700톤(1.7%), 대게 5만 100톤, 쥐노래미 5만 300톤(각 1.4%), 빨간 대구 4만 7,500톤, 민태류 4만 5,800톤(각 1.3%)이 있다. 이 9종을 합치면 전체 TAC의 93.3%를 차지한다.

또한 극동 유역에서는 소하성 어종인 태평양 연어의 TAC가 결정되었다. 연어 자원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2025년 러시아 EEZ의 태평양 연어의 TAC는 1,296톤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0월 14일

## 러시아 정부, 명태 필릿 수출관세 면제

### 러 어업계 경영 악화 방지 목적

러시아 정부는 고차가공 제품인 명태와 정어리 필릿을 환율 연동 수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조제, 통조림,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도 제외 대상이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21일자 결정 No.1538에 근거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품의 수출 관세를 루블과 달러 환율에 연동시켜 설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환율이 1달러당 95루블을 넘을 때 수출관세는 7%가 되고, 80루블 미만일 때 제로가 된다. 이는 루블화가 저렴하고 수출이 증가세일 때 세금을 징수하고, 루블화가 비싸고 수출이 감소세일 때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려는 목적이다.

러 어업계, 특히 명태 업계는 "투자 쿼터"에 의한 막대한 투자 부담 및 국제 제재 조치로 인한 수출 저하가 발생하는 와중에, 해당 수출 관세가 경영 악화를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철폐를 요구하였다.

\* 출처: 핫카이도 기선련, 2024년 11월 5일자



## 2025년 흰살 생선 공급량 감소 예상

### 저서어 포럼, 대구로 인한 10만톤 감소 예상

내년 대서양 대구 공급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태 어획량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1회 저서어 포럼에서 발표된 예측에 따르면, 대서양 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내년 전 세계 흰살 생선 어획량이 1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에 따르면 주요 야생 흰살 생선의 전체 세계 공급량은 2025년 682만 4,000톤으로 올해 692만 4,000톤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흰살 생선 중 대서양 대구는 내년에 19.6% 감소한 65만 6,000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야생 흰살 생선 자원인 알래스카 명태는 2025년에 374만 톤을 생산하여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이 중 200만 톤을, 미국과 캐나다가 150만 톤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국가의 생산량은 모두 올해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여러 소형 흰살 생선(남방 청새치, 호키, 대서양 홍어)의 어획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평양 대구도 소폭 증가 어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덕과 작은 대구는 각각 9%와 7% 감소 어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어획 쿼터의 급격한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산 어류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격변으로 인하여 흰살 생선 생산량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생선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도입하였다.

예상대로 바렌츠해 어획 쿼터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조정되면 노르웨이 대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내년까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서어 포럼의 예측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25년 대서양 대구 어획량이 올해보다 37% 감소한 14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31% 감소한 15만 2,000톤을 어획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 영국, 페로 제도에서도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한 가지 밝은 점은 아이슬란드의 대서양 대구 어획량이 내년에는 1.4% 증가한 21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대구 공급량은 2025년에 0.5% 증가한 37만 3,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해덕 공급량은 29만 6,000톤에서 26만 9,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대구는 38만 6,000톤에서 내년 36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민대구의 전체 공급량은 2025년에 약 9% 증가한 104만 7,000톤으로 예상되며, 소량 어종인 흰살 생선도 증가할 것으로 포럼은 전망하였다: 대서양 홍어는 2.3% 증가한 18만 1,000톤, 호키는 7.8% 증가한 15만 2,000톤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서어 포럼의 수치에 따르면 청대구 생산량은 15% 증가한 46,000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테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2024년 자연산 흰살 생선 공급량이 700만 톤을 조금 넘는 수준



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서양 대구는 이미 쿼터 삭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노르딕 그룹의 CEO 모튼 젠슨은 향후 2~3년간의 흰살 생선 산업은 “불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어류 가공 및 무역 협회(AIPCE-CEP)는 이번 주에 발표한 최신 연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흰살 생선 공급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어획 쿼터 삭감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2024 EU 수산물 공급 개요에서 협회는 2023년 야생 포획 흰살 생선에 대한 EU의 수요가 약 250만 톤으로 여전히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에서 가공되는 흰살 생선의 약 94%는 수입산이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0월 16일자

## 러 수산업 수익성, 7%에서 2%로 떨어질 수 있어

### 관세 미변동 수익성 위협

2025년 해양 수산업의 운영 수익성이 현재의 7%에서 2%로 감소할 수 있다고 러시아 어선선주 협회가 전망하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수출 환율 관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어선선주협회장은 2%의 수익성은 위험하다고 말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관세는 14.1%였으며, 2025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노레보(Norebo)社 부사장은 어선선주협회 회원사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명태 협회장은 명태 어업의 순이익이 5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다고 말하였다. 전러시아수산 협회장은 수산업이 돼지고기와 가금류 산업보다 수익성이 앞서있다고 지적하였다.

2023년 10월부터 생선 및 수산물에 대한 수출 환율 관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 금액은 4~7% 범위에서 다양하며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10월에는 5.5%, 11월에는 7%로 인상될 예정

이다.

어선주협회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24년 산업세 및 재정 지출 총액이 지난해 대비 27% 증가하여 1,15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경제개발부는 앞서 관세 및 관세 규제 소위원회가 명태와 정어리 필레에 대한 환율 관세 철폐를 지지하는 결의안 초안을 입법부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러시아수산협회장은 지적하였다.

당초 환율 관세는 2025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선주협회는 지적하였다. 도브로플로트 그룹의 전무이사는 기업이 정부를 설득해 환율 관세를 인상하지 않도록 할 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다. 재무부는 이 메커니즘의 지속 기간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1월 1일자



## 러시아 어민, 베링해 명태의 앞날 우려

### 조업 중 어군 탐지 시간이 올해는 50% 이상 소요

미디어에서는 믿을 수 없는 명태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극동 수역에 있는 이 물고기의 자원량은 무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베링해의 명태 자원은 고갈 징후가 있다. 업체는 쿼터를 줄이고 명태 개체수를 회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 많이 잡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국가와 러시아인의 이익에 어떤 논리가 더 바람직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러시아의 명태어업은 모두 순조로운 상황이다. 명태는 러시아 수역에서 모든 어획 35%를 차지하는 주요 어종이다. 명태 협회장인 알렉세이 부글락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이미 170만 톤이 어획되었으므로 시장에 물고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히려 올해 러시아에서 냉동 명태의 판매 가격은 하락하여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베링해에서는 지연이 있다. 베링해는 오호츠크해 다음으로 극동 명태 생산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이 지역의 어획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조업시간 중 어군 탐지 시간이 지난해 30%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

는 5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고, 그냥 트롤 그물을 던지기만 해도 어획이 되었다.

실제로 올해 베링해에서의 조업은 어렵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10월 1일까지 베링해에서 40만 2,000톤이 어획되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하였다. 동시에 다른 어종의 명태 생산량은 같은 수준 혹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연말까지 총어획량이 19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록적인 해였던 2023년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이는 세계 명태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에는 베링해에서 28~37척의 어선이 조업하였지만, 올해 여름에는 증가한 31~44척이 조업하였다. 즉, 조업선이 증가하였음에도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척당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평균 16~33%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베링해 쿼터(명태 70만 5천 톤)를 완전히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민들은 연료 소비량에 비해 어획이 순조롭지 못하여, 명태 자원 감소에 우려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며, 가장 큰 어업 협회는 이미 내년 베링해의 총허용 어획량(TAC)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지지하였다. 대다수 어민도 생산을 줄여 자원 회복에 뜻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미 러시아 국내 수요는 충족되었기에 러시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 명태는 이미 해외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명태

의 주요 소비처인 유럽은 미국인으로부터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 러시아 명태 필레가 미국산보다 이전에는 3% 저렴했다면 이제는 그 차이가 19%에 이르렀다. 유럽은 값비싼 생선으로 먹고 살며 저렴했던 러시아 수산물에 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10월 21일자

## 러, 올해 어획량 410만 톤 달성

### 명태 176만 톤 어획으로 지난해 대비 3,000톤 증가

러연방 CFMC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획량은 410만 톤을 넘어섰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수역: 310만 톤 이상(314만 9,500톤)  
명태 175만 7천 톤 이상(지난해 대비 2,800톤 증가); 대구 9만 5,200톤; 청어 34만 100톤(지난해 대비 5만 1,200톤 증가); 가자미 5만 6,800톤; 정어리 36만 8,200톤(지난해 대비 6만 6천 톤 증가).

- 북부 수역: 38만 3,600톤

대구 19만 7,100톤; 해덕 4만 9,100톤; 열빙어 5만 1,700톤(지난해 대비 2만 8,600톤).

- 서부 수역: 5만 9,700톤

유럽 청어 3만 1,500톤; 발트해 청어 1만 9,800톤

- 아조프-흑해 수역: 2만 6,700톤

멸치 9,200톤(지난해 대비 700톤 증가).

- 볼가-카스피해 수역: 5만 9,500톤

유럽 청어 2만 700톤

- 원양수역(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원양어선의 조업량은 41만 7,900톤이었다.

10월 19일 현재 3만 6,055톤의 수산물을 적재한 32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 연어(2,191톤), 명태(1만 6,887톤), 청어(433톤), 대구(1,280톤) 등 신선한 냉동 어획제품은 러시아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0월 22일자



## 러시아, 2029년 명태 연육 16만 톤 돌파 계획

### 내년도 명태 쿼터 소진율 감소로 시장 공급량 감소 예상

Russian Fishery社(RFC)의 신조선 건설이 일부 지연으로 연육 생산 계획 달성을 다음 해로 조정하였다.

올해 초 RFC의 CEO인 사블리 카르푸킨은 2028년까지 연육 생산을 16만 3,000톤을 전망한 바 있다.

10월 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Surimi School Europe(SSE)에서 RFC의 영업 이사인 올레그 모스크빈은 “선박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내년에는 러시아의 모든 선박과 공장에서 약 8만톤의 연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이 아닌 2029년에 16만 3,000톤 생산이 될 것이다.”

RFC는 2025년에 14% 증가한 8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새로운 선박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2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영업 이사는 말하였다. 올해 초에는 2025년에 12만 4,000톤, 2024년에 8만톤의 생산을 예상하였다.

영업 이사는 SSE에서 2025년 말에 연육 생산 능력을 갖춘 두 척의 새로운 RFC “슈퍼 트롤러선”이 도착하면 2026년에는 전국 생산량이 10만톤, 2027년에는 12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12만톤 중 약 2만톤만 러시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수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새로운 선

박과 공장은 EU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목표 시장은 아시아이다. RFC가 가장 큰 생산자이지만, Gidstroy社도 연육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선박과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RK Lenina는 소규모 생산자이다.

미국에서는 생산자들이 필렛 생산을 늘리고 연육 생산을 줄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생산을 약간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EU 시장이 신규 선박에 대해 폐쇄되어 2024년에 전년 대비 22% 감소한 약 9만 톤의 필렛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러시아 필렛 생산량은 9만톤으로 안정적으로 예측되며, H&G 및 라운드 생산량은 각각 75만 1,000톤과 15만톤으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 인상이 어획량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베링해에서의 어획 부진도 올해 예상보다 명태 생산량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정부가 TAC를 246만 톤으로 7% 인상하더라도 어획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TAC는 정부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TAC가 중요하지만, 실제 어획량은 달라질 수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베링해의 어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쿼터 소진율은 약 83~84%에 그칠 것이다. 결국 시장에 공급되는 명태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모스크빈영업이사는 언더커런트에 말하였다.



2024년 러시아는 서베링해 어획 악화로 인하여 229만 톤의 TAC 중 204만 톤을 어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는 베링해 조업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2025년에도 2024년과 같은 총어획량을 예상한다.”라고 모스크빈은 말하였다.

“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바다에 상당한 어자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TAC를 늘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영업 이사는 말하며 이는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14일자

## 美 명태 업계 “B시즌 베링해알류산 조업 성공적”

### A·B시즌 통틀어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

미국 명태 업계는 알래스카 명태 B시즌이 알래스카만 혼획 사태로 인한 중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영해에서의 B시즌 명태 어업은 6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베링해와 알류산열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해양수산서비스(이하, NMFS)에 따르면 A, B시즌을 통틀어 총 123만 1,521톤이 어획되었다. 이는 전체 쿼터의 약 97%이며, 2023년 총어획량인 126만 4,174톤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10월 26일 시점 알래스카만 중부서부 어획량은 A, B시즌 총합 12만 3,542톤으로 2023년 총어획량인 12만 5,015톤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해당 수역은 9월 25일 왕연어(chinook) 혼획 발생으로 인하여 어획이 중단된 바 있다.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이하, GAPP)의 CEO는 “어기 동안 어획물의 어체 크기는 좋은 편이었다. 어획 수준 또한 낮은 혼획률을 유지하며 좋은

수준이었다.”라고 말하였다.

혼획 문제는 알래스카만 외에 코디악 구역의 트롤선 2척이 약 2만 마리의 왕연어를 혼획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NMFS는 9월 25일 중부 수역 조업을 중단시켰고, 코디악에서는 B시즌 동안 쿼터의 24%만이 어획되었다. 치리코프 수역에서는 B시즌 동안 쿼터의 39%만이 어획되었다.

그러나 다른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부에서는 쿼터를 다소 초과하였다.

GAPP에서 제공한 제품 정보에 따르면, 올해의 연육 생산량은 2023년 대비 감소하였고, 덥스킨 필렛(껍질, 지방층 제거 필렛) 생산량도 감소하였으나, PBO(가시, 뼈 제거) 제품 생산량 증가로 상쇄되었다. H&G(머리, 내장 제거) 제품, 민스 제품, 명란 제품도 증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1월 5일자



## 알래스카, 러시아와의 흰살생선 경쟁에서 밀려

### 알래스카 수산업 수익성 50% 감소 및 4만 개 일자리 감소

러시아 어업계가 조업선과 연안 가공 시설에 투자로 향후 5~10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측은 알래스카 어업 산업에 대한 검토에서 NOAA가 제공한 것이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알래스카주의 어업은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된 이유는 매출이 32% 감소하고 업계 수익성이 5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업계에서 3만 8,000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알래스카 어업자들은 주로 연어, 명태, 대구를 잡는다. 이러한 어종의 가중 평균 세계 가격은 2023년에 23% 하락하였다. 동시에 어획된 수산물의 70%는 가공용으로 수출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된다. 예를 들어, 전러시아 어업 및 수출업협회(VARPE)에 따르면 미국 어민들은 2023년에 24만 1,700톤의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이 중 18만 5,600톤이 냉동 생선이었다. 반면 중국은 16만 3,800톤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였는데, 대부분 가공 및 통조림 형태의 계와 조개, 생선 및 생선 필레, 어육 등이었다.

러시아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 러시아산 생선과 수산물의 대미 수출 금지와 EU 시장의 제한

으로 인해 두 나라 어업자가 잡은 명태의 가격 차이가 커졌고, 이는 미국 어업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어업자는 또한 산업에 대한 투자 덕분에 이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생산 구조에 없거나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았던 품목인 연육과 필레를 심층 가공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NOAA 수산 보고서에 따르면 알래스카의 가공에 투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낮은 세계 어류 가격과 높은 대출 금리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일이다.

VARPE에 따르면 러시아 어업자들은 러시아 농공업 단지의 주요 투자자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어업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3배 증가한 1,012억 루블에 달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 어업인들은 현대화에 277억 루블을 추가로 투자하여 투자 규모 면에서 상위 5위권에 진입하였다. 한편, 어업은 수익성 하락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3년 순이익은 13% 감소한 1,361억 루블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출 효율성 저하이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0월 16일



## 러시아-노르웨이, 2025년 조업 조건 합의 노르웨이 어업협정 총가치의 절반 차지

노르웨이 무역수산부와 노르웨이 언론은 제54차 러시아-노르웨이 공동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도하였다. 양측은 공동 관리 어족 자원에 대한 국가별 어획 할당량을 결정하였다.

10월 21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시작된 협상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다. 노르웨이 무역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대구의 총허용어획량(TAC)은 34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노르웨이, 러시아 및 제3국에 배분될 예정이다. 2025년 쿼터 중 노르웨이의 할당량은 16만 3,400 톤이다.

2025년 대구 쿼터는 13만 톤으로 이중 노르웨이 몫은 6만 5,500톤이다. 검정가자미의 어획 할당량은 2,300톤이 감소한 1만 9천톤이 되었다. 가자미 쿼터 중 노르웨이 몫은 9,700톤이다.

붉은 볼락의 총쿼터는 2024년보다 3천 톤 줄어든 6만 7,200톤으로 설정되었다. 노르웨이의 볼락 어업 쿼터는 4만 6,400톤이다. 그리고 열빙어 조업은 2025년에 금지된다.

생태학자 Geir Hønneland(게이르 헨넬란드)에 따르면, 합의의사록의 지난 2년간 확립된 관행에 따라 러시아 측은 노르웨이가 러시아 어선의 노르웨이 항구 접근에 추가 제한이 도입될 경우, 합의 문서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2024년에도 2023년과 동일하게 1990년대 초에 설립된 이래 바렌츠해에서 공동 어업관리를 수행하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노르웨이 어업 관계가 연간 쿼터 할당에 국한되지 않고 195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양국 간의 과학 협력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의 ICES 참여가 중단되고 바렌츠해의 쿼터 협의가 다자 수준에서 양자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러시아-노르웨이 북극 어업 실무 그룹으로 이동한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노르웨이 옵서버들은 합의의사록의 여러 단락에서 러시아-노르웨이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또한 스발바르 인근의 어업 관리에 대한 입장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일부 서유럽 국가에 간접적으로 표명한 부분도 있다.

마리안 시베르센 네스(Marianne Sivertsen Næss) 수산해양부 장관은 이 합의가 북부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바렌츠해의 대구와 다른 어족 자원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러시아와의 협정이 노르웨이 어업협정 총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노르웨이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획 대상인 대구 때문이다. 노르웨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르웨이의 쿼터 가치는 약 84억 크로네(약 7억 6천만 달러)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1월 1일자



## 러시아, ICES 협약 공식 탈퇴

### 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다른 옵션 사용키로

러, 북대서양 수산자원 관련 주요 기구인 국제해양 탐사위원회(ICES) 탈퇴를 위하여 관련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당국은 1964년에 서명한 협약 탈퇴를 위해 연방법 359-FZ를 제정하였으며, 법은 10월 29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러시아 수산청은 성명에서 1964년 협약 탈퇴를 규정하는 새 법안은 모든 러시아 대표와 전문가들의 ICES 활동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ICES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22년 3월 러시아 연방의 ICES 활동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협약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관은 밝혔다.

ICES는 북대서양과 인접 해역의 어획 할당량 설정

에 관한 연구를 조정하고 회원국에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ICES는 바렌츠해와 발트해 어족 자원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을 발표한다.

연방수산청은 ICES에 대한 1964년 협약 탈퇴 결정이 북대서양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제법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러시아 관리들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간 협정 준수뿐만 아니라, CCAMLR를 포함한 다른 국제 수산 기구의 회원국 탈퇴를 제안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30일자

## 한국에 공급되는 대구의 95% 러시아에서 공급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4,775톤 공급

2024년 9월 현재 한국의 냉동 대구 수입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다.

9월에만 200톤의 냉동 대구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수입된 595톤보다 66% 감소한 수치이다. 2024년 9월까지 총 누적 수입량은 4,775톤으로 2023년 같은 기간 수입된 9,721톤의 거의 절반이다.

냉동 대구는 전체 수산물 수입량 65만 1,137톤의 0.73%를 차지하였다.

러시아가 4,531톤으로 수입량의 96%를 차지한 주요 공급국이었으며, 미국이 125톤, 캐나다 69톤,

중국이 20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9월 냉동 대구 수입 총액은 4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1만 달러보다 72% 감소하였다. 2024년 9월까지의 수입액은 1,480만 달러로 전년도 동기의 3,674만 달러에 비해 60% 감소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kg당 3.10달러로 전년도 동기 3.78달러에 비해 18%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 감소와 수입 가격 하락을 모두 반영하였다.

러시아산 냉동 대구의 한국 도매가격은 L사이즈(18.5kg) 8만 6천원, M사이즈 8만 3천원이다.

\* 출처: Fishnet, 2024년 10월 31일자



## 분석가, 러시아 내 명태 수요 증가에 주목

### 넓은 인식과 요리에 대한 지식 부족 극복

재정 데이터 운영 연구에 따르면 7~9월 러시아인들은 명태 구매 횟수를 늘렸다. 명태 협회도 수요 증가를 확인하였다. 작년부터 협회는 러시아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명태 구매 증가에 대해 RIA “Novosti”는 회사 “Platform OFD”의 전문가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고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10%의 증가가 기록되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에서 명태 수요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20만 톤 이상의 제품이 러시아 국내 시장에 공급되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성장한 것이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명태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한 것도 명태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협회는 말한다. 2023년 9월, 협회는 '극동 명태'라는 특별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개별 생산자의 상표가 아니라 명태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포괄적인 브랜드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이자 러시아 국내 시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국내 최대 생선 생산업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장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소비자가 명태를 자주 먹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고 회상하였

다. 주된 이유 중에는 “2류” 생선이라는 넓은 인식과 요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방대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십 가지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기업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개설하여 우리가 만든 모든 콘텐츠를 공개하였다. 또한 유명 요리 블로거와 40회 이상 협업하여 명태 요리를 만들고 그 레시피를 구독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명태의 어획과 가공 과정에 대한 미니 시리즈를 촬영하여 소비자들이 명태 어획과 가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소련이나 2000년대 초반과는 전혀 다른 품질이다. 올해 우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러시아인들은 마스터 클래스, 시식회, 주요 축제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그는 또한 명태가 더 저렴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1분기와 2분기에 냉동 명태 1kg의 판매 가격은 80~90루블, 필렛은 205~215루블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명태의 이미지 변화와 경제성 증가를 고려할 때 협회는 국내 소비가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소매 판매 통계에서 확인된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0월 25일자



## 러시아산 필렛, 브릭스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 찾아 판매처 다양화로 가격 안정 및 수익 규모 변화

러시아는 향후 몇 년 동안 인도, 브라질, 중국과 같은 주요 브릭스 파트너에게 고차 가공 수산물의 공급을 늘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러시아수산산업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장은 10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시장과 제품: 2030년까지 어류 및 수산물 수출 전망”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명태 필렛, 연육, 염건어, 어분 등 다양한 종류의 고차 가공 수산물이 수출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협회는 러시아 명태 필렛에 대한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5,000~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Fishnews 특파원은 보도하였다.

그는 유럽 수출업체와 비교하여 러시아 기업의 인도 시장 수산물 공급 조건을 평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와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수산물이 인도에 무관세로 들어온다. 인도에는 러시아산 수산물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브릭스 파트너인 인도가 러시아 생선 수출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생산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인도 시장에 또 유용할 것이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는 브라질을 심층 가공 제품의 또 다른 유망

지역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브라질 수입을 위한 등록 수출 기업 수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브라질은 대구 제품을 소비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투자 쿼터에 따라 건조된 신규 선박을 포함하여, 어선에서 생산된 필렛도 선박이 적절한 면허 번호를 받으면 브라질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일부 러시아 회사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염건어(Clipfish)도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명란 같은 러시아 어민들의 틈새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가격 충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이 될 수 있다. “현재 명란의 주요 시장은 일본 시장이다. 일본인은 명태를 매우 좋아하고 냉동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는 전망을 보지만 하나의 구매자에 대한 의존은 구매자에 의한 가격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협회장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명란에 대한 전망이 밝다. “약 1,500~2,000톤의 명란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면 하나의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 파괴 현상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수산 제품의 수익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0월 26일자



## 러시아, 중국에 연간 5,000톤의 명란 공급 목표

명태 제품 중국의 수입량 68%(금액 기준 57%) 차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명태 캐비어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연간 최대 5,000톤으로 추정된다고 명태 협회는 보고하였다.

매년 러시아 어업자들은 약 3만 5,000톤의 명란을 생산하며 이 부문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활계와 대서양 연어를 중국에 홍보하여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품을 중국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다.

협회는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수산물 전시회인 중국 수산물 박람회(China Seafood Expo)에서 명란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내 수요로 인하여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

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새로운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매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며 적절한 마케팅을 통하여 중국은 전체 명태 제품 소비의 핵심 시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는 중국을 러시아 명태 어업의 주요 시장으로 선정하였다. 2023년 명태 제품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기준 68%, 금액 기준 57%였다. 2024년 9개월간 중국은 러시아에서 냉동 명태 41만 5,000톤, 필렛 1만 7,000톤, 연육 2만 1천 톤을 수입하여 총 4억 7,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Fishportal, 2024년 10월 20일자

## 한국, 러시아 청어 구매 크게 줄어

수입 가격 18% 상승

2024년 9월 한국의 냉동 태평양 청어 수입량은 620톤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3,142톤보다 80% 감소하였다. 9월 기준 총수입량은 2만 3,038톤으로 지난해 대비 44% 감소하였다.

냉동 태평양 청어는 65만 1,137톤의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1.8%를 차지하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입된 냉동 태평양 청어의 99%인 1만 1,971톤이 러시아에서, 61톤이 미얀마에서, 6톤이 노르웨이에서 수입되었다.

수입 가격은 러시아산 냉동 태평양 청어가 kg당 0.87달러였다. 미얀마산은 kg당 1.98달러였다.

2024년 9월 냉동 태평양 청어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223만 달러에서 76% 감소한 52만 달러였다. 9월까지의 누적 수입액은 1,059만 달러로 2023년의 1,596만 달러보다 감소하였다.

냉동 청어의 평균 수입 가격은 kg당 0.88달러로 지난해의 0.75달러보다 18% 상승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4년 10월 28일자



## 日 10월 말 콩치 어획량 누계 약 3만 톤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배

일본 전국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 11월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말 시점 일본 전국 콩치 어획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1.9배 수준인 2만 9,344톤을 기록하였다. 금액상으로는 전년도 동기 대비 1.9배 수준인 142억 6,899만 엔이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에서 전년 대비 2.2배인 2만 725톤, 혼슈(일본을 구성하는 4개 본섬 중 가장 큰 섬)에서 1.5배인 8,619톤이다. 금액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전년도 대비 2배인 98억 3,826만 엔, 혼슈에서 1.6배인 44억 3,072만 엔이다. 전국 평균 단가는 전년도 수준인 10kg당 4,863엔이다.

일본은 올해 콩치붕수망어업 시작일이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8월 10일로 통일되어 주력인 대형선(100톤 이상)의 출어가 10일 앞당겨졌다. 어장은 최근 수년간의 경향과 같이 공해 중심이지만,

“올해는 일본에 가까운 장소에서 조업할 수 있다. 10월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도 4,0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라고 어협의 오오이시 전무가 말하였다. 대형선의 출어가 앞당겨진 것과 좋은 조업 조건이 지금까지의 어획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0월 하순에는 일부의 배가 일본 수역 내의 ‘에리모미사키(襟裳岬)’ 곳 연안 등지에서 조업하였다. 10월 말에 러시아 수역 조업을 끝낸 후에는 어획이 끊겼으나 러시아 내에는 아직 콩치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어, 향후 공해나 일본 수역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오오이시 전무는 말하였다.

여기는 12월 말까지이며, 최근에는 2019년 어기 수준의 어획량인 4만 톤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1월 7일자

## 日 9월 콩치 어획량, 전년 대비 60% 증가

약 9,500톤...수온 저하로 남하 경향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에 따르면, 9월 일본 전국 항구에 양륙된 콩치의 양은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9,471톤이다. 9월 하순 수온이 13~14도대로 내려가면서, 어군이 남하하여 어획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양륙 항구는 일본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이다. 10월 상순의 주력 어장은 하나사키항에서 동북동으로 410~550해리이다. 하나사키항 남동

250~260해리 근처에도 산발적으로 어장이 형성되었다. 10~11일 새벽 이후로는 하나사키 동남동 250해리~하나사키 동 410해리가 주 어장이었다. 배로 하루 반 정도의 장소에서 많은 어선이 2~3박에 걸쳐 조업 중이다.

어체는 26~29cm, 체중 80~100g을 중심으로, 짧지만 어느 정도 지방질이 있는 수준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0월 21일



## 日 10월 하순 꽁치 어획량 2만 톤 돌파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배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전국 꽁치 양륙 실적은 20일까지의 누계로 전년도 동기 대비 90% 증가한 약 2만 1,000톤을 기록하면서 2만 톤을 넘어섰다.

주 어장은 네무로·하나사키의 동남동 약 500km로, 대형선으로 편도 1일 정도 걸리는 공해에 형성되었다. 하나사키에서 800~1,000km였던 이달 초에 비하여 일본 쪽에 가까워졌다.

10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진 러시아 수역에도 어장이 형성되었다. 일본 전국꽁치봉수망어협(이하, 협회)에 따르면 22일 시점에서 조업 허가를 보유한 대형선 17척, 중형선, 소형선 각 1척 중에서 대형선 1척을 제외한 18척이 조업 중이다. 이미 대형선은 2항차로, 중·소형선도 몇 번에 걸쳐 항해하여 양륙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공해 어장에 비하여 어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업자들에게 어장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좋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은 10월 말까지이다.

JAFIC에 따르면 이 외에 소형선 몇 척은 하나사키의 남남동 300km 미만의 일본 수역에서도 조업 중이다. JAFIC 담당자에 따르면 “어군은 적으나, 아슬아슬하게 당일 양륙이 가능한 거리”이며, 어체도 90~120g 전후가 주를 이룬다. 이는 현재 공해 어장의 주요 어체(80~110g)에 비하여 다소 크다.

10월 하순 시점 평균 단가는 kg당 494엔(22일 시점)으로, 지난해 10월의 월간 평균에 비하여 7% 높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25일

## 日 미야기 오나가와초 꽁치 양륙량 순조로운 상황

10월 상순 동안 전년 대비 4배 양륙

일본 주요 어항 중 하나인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서의 꽁치 양륙이 순조로운 추세로, 작년 동기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오나가와 어시장의 10월 10일 시점 양륙 실적은 전년도 같은 날 대비 3.9배인 779.5톤이다. 어체도 70~80g의 소형 편중이었던 작년과 달리 100g 전후가 중심이다. 어선, 시장, 매입자 등 관계자는 모두 “지난 수년에서는 가장 좋다. 옛날 수준과 비교하면 아쉬움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1일에는 북위 45도, 동경 157도의 공해에서 조업한 어선이 69톤을 양륙하였다. 12일에는 다른 어선이 약 96톤을 양륙하였다. 오나가와 어시장의 가토 히로시 사장은 “11월부터가 본래는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는 시기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예측할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은 양륙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15일



## 공치 어체, 해수 온도 상승으로 점점 작아져 영양가 높은 먹이가 깊은 바다로 이동

기후 변화로 인하여 주요 먹이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일본의 가을 제철 특산품인 공치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해수 온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공치의 먹이가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플랑크톤 생태학을 전공하고 연구를 주도한 홋카이도 대학의 부교수인 야마구치 아츠시는 “지구가 따뜻해지면 공치는 더 가늘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연간 공치 어획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공치는 눈에 띄게 작아졌다.

연구팀은 2021년 여름 공치가 모이는 북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플랑크톤을 채집하였다. 연구팀은 수온이 3도, 7도, 11도의 세 가지 수조에 플랑크톤을 넣고 성장 속도를 관찰하였다. 수온은 플랑크톤을 채집한 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온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유칼라누스 번지(eucalanus bungii)

와 메트리디아 퍼시픽카(metridia pacifica)와 같이 영양가가 낮은 동물성 플랑크톤 종은 수온이 상승할수록 더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치가 먹이로 삼는 영양가가 높은 네오칼라누스 플럼크리스(neocalanus plumchrus)는 높은 수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오칼라누스 플럼크리스는 수온이 7도일 때 번성하지만, 수온이 11도까지 올라가자 성장률이 평균 52% 떨어졌다. 가장 큰 감소폭은 98%에 달하였다.

공치는 수면에서 최대 20m 깊이에서 생활한다.

연구진은 수온이 높으면 네오칼라누스 플럼크리스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식지에서 플랑크톤을 잡을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연구팀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북태평양에서 극도로 높은 해수 온도가 지속되는 해양 열파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공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아사히신문 영문판, 2024년 10월 28일자

###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 수산분야 FTA 체결국 소식

### 수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 기대

- 북동대서양 고등어 어기 8월 초 본격화, 노르웨이의 8월 어획량과 수출량 전년 대비 각각 2.2배, 1.6배 증가한 5만 3천톤, 1만 7천 톤 기록하였다.

9월 6일까지 노르웨이 선박의 어획량은 9만 3천 톤으로 자국 할당량의 40% 소진하였다.

- 노르웨이와 EU가 노르웨이 수산물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EU가 노르웨이 연어의 최대 수입시장임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 연어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조치의 영향으로 미국산 명태 및 대구 수출이 증가하였다.

- 영국 최초의 육상 연어 양식장 건설이 동물 보호 단체의 법적 소송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 인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인도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 인도네시아 다랑어 산업,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4% 감소한 3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대중국 수출은 60.6% 감소한 5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대 미국 수출은 12.1%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중국의 새우 사료 생산량은 2023년 182만 4천

톤으로 지난해 대비 10.1%(약 17만 톤)가 증가하였다.

- 페루는 올해 멸치 공급 증가로 어분 및 어유 생산이 지난해 대비 각각 40%, 11% 증가하였다.

- 호주는 멸종 위기 가오리(Maugean Skate) 보호를 위해 이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 연어 양식 산업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만에서 10명의 외국인 어민이 11~15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여 대만 수산청에 대책을 촉구하였다. 국회는 어민의 임금 보장, 어선의 무선 인터넷 설치 등 어업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만 수산청은 2023년 4월 기준 대만의 2천 척 이상의 원양 어선 중 116척에 무선 와이파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92척에서만 선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아르헨티나는 홍새우를 8월까지 약 10만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여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FiTI(Fisheries Transparency Initiative) 표준을 채택한 첫 번째 국가로, 수산업 관리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FiT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출처: 수산분야 FTA 소식지,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원양어선 어획량 지난해 대비 29% 증가

기후 변화에도 미래를 훼손치 않으며 식량 안보에 기여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38만 7,52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9,504톤보다 29% 증가하였다.

참치연승(횃감용 참치) 어선은 3만 6,094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참치선망(주로 통조림용 참치) 어선은 22만 3,651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36% 증가하였다.

원양오징어채낚기 어선은 3만 7,948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122% 증가하였다.

원양꽂치붕수망 어선은 4,048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39% 증가하였다.

원양저연승(대구, 이빨고기) 어선은 4,291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3% 감소하였다.

원양트롤 어선은 8만 1,494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2% 감소하였다. 원양트롤 어선 중 명태트롤 어선의 경우 2만 1,789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3% 증가하였으며, 오징어 트롤 어선의 경우 3만 7,709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대비 75% 증가하였다.

## CCAMLR 일본 조업수역 이빨고기 TAC 5,740톤

### 크릴 TAC 전년도 수준 유지

남극해양생물보존관리위원회(이하, CCAMLR) 제43회 연례회의가 14~25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12월~2025년 11월 어기의 이빨고기의 경우, 일본이 조업하는 수역의 어획 할당량(TAC)은 이전 어기 대비 124톤 증가한 5,740톤으로 합의되었다. TAC의 증가는 2년 연속이다.

현시점에서 일본 선박의 어획 대상이 아닌 크릴

의 TAC는, 전년 어기와 같은 869만 5,000톤이다. 남극해의 일부를 해양보호구역(MPA)로 하는 제안은 지난해에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다음 연례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일본 선박은 CCAMLR 수역에서 원양 저연승선 1척이 입어하여 이빨고기를 어획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0월 30일



## MPA 지정 무산으로 남극 크릴 어업 증가 예상 CCAMLR 회의서 결정

전세계 15개 글로벌 환경보존 조직으로 구성된 남극남극해연합(이하 연합)은 10월 14~25일 호주 호바트에서 진행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연례회의의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였다.

연합은 남극의 해양생물 보존 책임을 맡은 CCAMLR가 크릴 어업 관리에서 퇴보를 보였고 새 해양보호구역(이하, MPA) 지정을 차단하면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다.

남극 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두 배나 빨리 온난화되고 희귀 야생 동물이 서식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남극 인근에 MPA를 설립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연합은 해양보호구역과 개정된 크릴 관리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남극해 크릴에 대한 중요한 보호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연합은 CCAMLR가 2016년 이후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채택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

지 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연합은 CCAMLR가 크릴 관리 조치를 뒤집는 것이 크릴 어업의 남극 해양 생물에 대한 영향을 관리한다는 CCAMLR의 사명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뉴스 Mongaby는 크릴 어업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커지면서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1년간의 협상에도 CCAMLR 회원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하였다.

Mongaby는 또한 극 반도 서부에 새로운 MPA를 지정하는 제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과도한 집중적 어업을 피하기 위하여 크릴 어업 활동을 분산시키는 내용인 보존 조치 51-07(CM 51-07)의 갱신을 막았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0월 28일자

## 러, 중국으로부터 문어 수입 1.4배 증가 총수입량은 3% 감소

수산 연맹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올해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지난해 동기 대비 1.4배인 245톤의 문어를 수입하였다.

수입문어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29% 감소하여 kg당 690루블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문어의 총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674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족류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획량으로 인하여 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러시아도 문어를 어획하고 있으나 자연 및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어획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극동수역에서 154톤의 문어를 어획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0월 30일자



## 러-중 간 전자 수출 증명서 교환 시작

### 한-러간 수산물 통제 강화에도 적용 예정

RFC(Russian Fishery Company)사는 중국으로의 수산 생물 자원 수출에 대한 업계 역사상 최초의 전자 인증서를 받았다. 냉동 명태의 중국 수출 서류는 10월 15일 중국 규제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되었다.

이 증명서는 올해 9월 19일 연해주 수산청에서 발급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9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생물자원의 원산지 증명서 등록, 승인 및 검증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규제 당국은 검증을 위해 360개 이상의 수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4개는 전자적으로 작성 및 접수되었다.

신청서는 러연방수산청 웹사이트와 SIGUR 통제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가 등록되면 관련 부처로 전달되어 신청서 처리, 인증서 발급 및 발송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화된다.

중국 규제 당국은 폐쇄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증서를 받은 다음 QR 코드를 판독하여 인증서를 확인한다.

전자 인증은 필요한 서류 처리와 관련된 수출업체의 시간과 자원을 줄이고 품질 관리 및 제품 합법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며, 국가 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 조성을 강화한다. 공식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한국에도 전자 수출 인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0월 18일자

## 2023년 러시아의 생선 소비량 2% 증가

### 생선에 대한 인기와 접근성 향상 필요

전러시아 수산업 및 수출업 협회(VARPE) 회장은 2023년 러시아 생선 소비가 2% 증가하여 1인당 22kg을 넘어섰다고 RIA 노보스티에 말하였다.

"1년에 22.5kg이 평균 러시아 거주자의 식탁에 오르는 생선의 양이다. 이는 2022년보다 2% 더 많은 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2023년 소비 증가 측면에서 생선 제품이 우유 및 유제품, 계란 및 설탕을 앞질렀다. 생선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극동 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은 연간 약 26kg의 생선을 섭취한다. 소비의 두 번째는 연간 1인당 24.6 kg의 생

선을 섭취하는 중앙 연방 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에 반제품 및 완제품 생선 제품의 소비는 14% 증가하였지만, 전체 "생선 및 생선 제품" 범주에서 여전히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장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선 소비 증가 로드맵에는 인기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동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생선 배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물류 인프라 개발, '저렴한 생선'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10월 14일



## 스웨덴, 수산물 산업 강화 모색 수산물의 잠재력과 가치에 대해 이해 시작

스웨덴 수산물 협회장이 주요 자문 그룹에 임명된 후, 그는 어업과 양식업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IntraFish에 말하였다.

수산물 업계 대표가 처음으로 스웨덴의 식품 산업에 관한 정부 자문 그룹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수입 생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어업 및 양식 업계에서 환영하고 있다.

스웨덴 수산물 협회의 크리산 켄트 회장은 지난 6월 정부 식품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말까지이다.

“식량 공급의 중요성과 어업, 양식업, 블루푸드 산업의 막대한 기회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협회장은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수입 식품에 크게 의존하는 스웨덴은 최근 몇 년간 식품 산업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긴 해안선과 많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 수산업 협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매니저인 피터 린더는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명은 “정부가 수산물 부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지표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새로운 식품 산업 로드맵은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식량 생산을 늘리고,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잠재적 취약

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문을 강화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주로 소규모 프로젝트, 호텔 및 요식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식량 생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매니저는 말하였다.

그는 “이 변화가 핵심”이라며 “수산물 산업이 국가를 위한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하였다.

스웨덴은 현재 연간 약 1만 2,000톤의 양식 어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북극 연어와 무지개 송어이다. 스웨덴은 또한 대규모의 원양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급자족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원양 어족 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중 80%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거나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라고 매니저는 말하였다.

수산 업계는 특히 세 가지 주요 분야, 즉 원양 어류의 국내 이용 증가, 육상 및 해상 양식에 대한 더 나은 기회 제공, 간소화된 규제 절차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매니저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특히 양식 업체는 승인을 받기까지 5년에서 9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육상 연어 그룹인 Smogenlax는 2,000톤 규모의 양식장 승인을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 사이 설립자는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과거에 '긴급'이라는 단어가 현지 인허가 당국에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라고 Smogenlax의 조엘 오레스텐 회장은 IntraFish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매니저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스웨덴은 일자리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하였다. 수산물 산업이 더 커지면 가치 창출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생산은 종종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자금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스웨덴 북부에 있는 10개의 일자리가 대도시의 100개 이상의 일자리보다 가치가 있다고 매니저는 말하였다.

“정부는 수산 분야가 소득 창출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1월 6일자

## 日, 더 많은 대서양 고등어 수입 올가을부터 대서양 고등어가 회나 초밥에도 사용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점점 더 많은 대서양 고등어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 이유는 현지 어부들이 잡은 태평양 고등어의 소비자 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작년 일본 항구에는 26만 1천 톤의 태평양 고등어가 하역되었다. 어획량으로 보면 정어리에 이어 두 번째 상업적 대상이며, 역시 가을철에 어획되는 쾅치 2만 6천 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일본의 고등어 어획량도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어부들이 잡은 고등어는 무게가 약 200g 이하이고 지방이 너무 적어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작고 마른 물고기는 사료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하였다.

동시에 2023년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대서양 고등어는 13% 증가한 6만 2,000톤으로 증가하였

다. 중국과 베트남을 통한 공급과 함께 현지 레스토랑에서 인기 있는 이 생선은 연간 13~14만 톤이 일본으로 수입된다.

예를 들어, Jalux社は 2021년부터 노르웨이에서 Saba Nouveau 또는 '노르웨이 고등어'라는 이름으로 무게가 500g 이상이고 지방 함량이 30% 이상인 고등어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생선은 일본항공 일등석 승객을 위한 기내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올가을부터 일본은 회로 먹거나 초밥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서양 고등어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생선은 알코올로 초고속 냉동되므로 소비자는 기생충으로 인한 위장관 감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출처: Fishnet, 2024년 10월 25일자



## 日 2024년도 상반기 식품 수출액 2% 감소 어패류 수입 3% 증가

일본 재무성은 2024년 상반기(2024년 4~9월) 무역통계를 발표하였다. 해당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5,710억 800만 엔이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하여, 대중국 수출액은 48.8% 감소한 568억 4,800만 엔을 기록하였다.

한편, 그 외 주요국 및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 추세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국으로의 수출액은 14.8% 증가한 1,168억 5,200만 엔, 대미국 수출은 12% 증가한 1,037억 1,900만 엔이었다. EU행 수출액은 25.5% 증가하였고, 한국행 수출은 28.4% 증가, 중동행 수출은 13% 증가하였다. 러

시아행 수출은 32.4% 증가한 21억 9,300만 엔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의 어패류 수입의 경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93만 7,582톤, 수입액은 2.8% 증가한 9,257억 9,300만 엔이었다.

이 중 중국산의 수입량이 6.4% 증가한 19만 1,922톤, 수입액은 11.5% 증가한 1,986억 4,800만 엔이었고, ASEAN산이 0.9% 감소한 17만 8,655톤, 1,902억 3,900만 엔(전년 동기과 동일)이었다. 미국산은 10% 감소한 12만 3,399톤, 8.1% 감소한 755억 7,800만 엔이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0월 18일

## 베트남, 게 수출 기록 경신

### 지난해 대비 66% 증가한 2억 3천만 달러 달성

2024년 9개월 동안 베트남의 게 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2억 2,7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모든 주요 시장,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서 제공하였다. 베트남산 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많이 구매되고 있다.

협회는 베트남의 게 수출 총액이 3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수산물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71억 6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중 새우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8억 달러로 해외 시장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VASEP은 연말까지 총수출액이 2023년 실적보다 7% 증가한 9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우, 팡가시우스, 참치, 오징어, 문어는 베트남 어업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0월 22일자



## 캐나다 논문 “정확한 식품 정보 제공 필요”

### 조사 대상 수산물의 1/5이 잘못된 라벨링

조사에 참여한 수산물 제품 5개 중 1개는 라벨이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수산물을 먹다 보면 잘못된 표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멸종 위기에 처한 어종을 섭취할 수 있다. 허위 라벨링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구매하려는 생선의 종과 실제 생선이 다를 때 발생한다.

수산물이 여러 국가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획부터 식탁까지 생선을 추적하는 것은 물류적으로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다른 어종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틸라피아처럼 저렴한 생선에 참돔처럼 비싼 생선의 이름을 붙이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더 잘 팔리는 대체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수산물 허위 표시는 취약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윤리적 식품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캐나다의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퀘벡에서 어류 제품의 잘못된 라벨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캐나다에서 시행된 최초의 연구이다.

대학생들은 퀘벡의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새우, 문어, 굴을 포함한 347개의 어류 제품과 109개의 조개류 제품을 샘플링하였다. 그런 다음 이 샘플들을 유전자 검사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식품 검사국이 생선 라벨링에 허용되는 일반 명칭을 제공하는 생선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만약 어종 목록에 없는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되는 수산물 제품은 라벨이 잘못 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연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종은 대서양 연어인 단 한 종뿐이다. 홍연어를 다른 수식어 없이 연어라고 판매하면 잘못된 라벨링으로 간주한다.

결과는, 캐나다 수산 제품 5개 중 1개는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있었다.

캐나다 퀘벡에서 허위 표시가 만연하고 있으며, 보존이 우려되는 종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5개 중 1개의 어류와 5개 중 1개의 조개류가 표기된 것과 다른 종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허위 표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도미와 참돔 제품의 100%가 라벨이 잘못 표시



되어 있었다.

- 9개의 연어 제품은 가격이 더 저렴한 무지개 송어로 확인되었다.

- 태평양 대구 3마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취약종으로 분류한 대서양 대구로 판명되었다.

- 두 개의 장어 제품이 멸종 위기에 처한 유럽산 장어로 확인되었다.

- 갑오징어, 오징어, 문어는 서로 잘못 표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대서양 연어, 베트남메기, 넙치, 고등어, 홍연어, 태평양 흰새우는 모두 라벨링 표기 내용과 일치하였다.

\* 출처: Castanet, 2024년 10월 23일자

## 英 기업, 구매자 원격 생선 품질 평가 시스템 개발

### 어획 및 취급 방법에도 긍정적 피드백 제공

영국의 한 기술 회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강화 시스템은 수산물의 도매 구매 및 판매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캐치AI의 어획보고(Catch Report)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양류 및 분류되는 수산물의 영상을 캡처하여 등록된 구매자가 경매에 앞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어획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숙련된 업계 등급 분류사 및 구매자와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2022년 브릭엄 수산시장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었다. 블루캐치AI의 CCO이자 공동 설립자인 톰 고다드는 피싱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부터 공급망 전반에서 AI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수산물 산업에서 기회를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산물의 대부분이 판매 전에 '블라인

드'로 구매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재고를 검사하기 위해 시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에 간다고 해도 얼음으로 덮인 수많은 상자와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작업을 훨씬 더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구매자는 어디서든 모든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매자도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신규 구매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장들은 자신과 선원들이 열심히 잡은 어획물을 항상 보거나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품질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어획 및 취급 방법에 도움이 되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 출처: Fishing News, 2024년 10월 20일자



## 국가 차원의 수산물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공급 위기 대응

2022년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360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6%씩 증가하였다. 이중 어류 및 연체동물은 연평균 0.7%, 5.8% 감소하였으나 해조류 및 패류는 7.1%, 2.3% 증가하며 어류 및 연체동물의 생산량 감소를 해조류 생산이 대체하는 추세이다.

2022년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은 총 171만 톤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2.4%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55만 톤, 32%), 중국(38만 톤, 22.1%), 베트남(18만톤, 10.5%), 노르웨이(8만톤, 4.9%) 순이었다. 국가별로 중국은 연평균 6.2%씩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의 경우 16.0%, 0.2%, 4.9%씩 증가하였다.

어종별로 명태가 38만 톤(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징어 14만톤(8.1%), 새우 10만톤(5.6%), 연어 8만톤(4.5%) 순이었다.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수에즈 운하 대형 컨테이너 좌초에 따른 물류 마비, 미국 텍사스 한파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전 세계 국

가들은 공급망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위험에 우리는 일시적 비정기적 상황으로 간주하여 위험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아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수입 수산물 전략 품목 선정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관리
- 수입 수산물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수산물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 제도 도입
-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적정 자급률 유지
-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확대 및 활성화
- 비축수산물 범위에서 수입 수산물 전략 품목을 선정 포함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연계하여 해외 수산진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출처: 한국수산무역협회(3분기호-KMI 자료 인용), 2024년 10월 22일자



## 선박등록제도, 변화 및 혜택 제공 필요

### 건조 선박에 국적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영향 증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선박등록국이다. 사람은 태어난 곳이나 부모의 혈통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박에 비유하면 배가 건조된 곳은 출생지에 해당하고, 배의 소유자는 부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선박등록은 이러한 출생지와 소유자의 국적이 선박등록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가마다 선박의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2조에 따라 한국인이나 한국에 등록된 회사가 소유한 선박에만 국적을 부여한다. 한편, 미국은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도 국적을 부여한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셜제도는 편의치적선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많은 선박이 이들 국가의 주소지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근거로 선적을 얻는다. 이러한 방식이 소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 세계 상선의 60% 이상이 편의치적국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안전문제를 항만국 통제와 국제안전관리규약(ISM코드)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편의치적선은 타국의 선원 승선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 면세 혜택, 금융 제공자 보호, 등록·등기·선급 업무의 창구 단일화 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맨섬 등록제도를 통하여 선박이 편의치적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선의 1/3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에 미국과 같이 건조한 선박에 국적을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국적 선박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선급에 가입하는 선박의 숫자가 증가하며,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받게 되며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부산일보, 2024년 11월 4일자



## 수산물 수출액 1.5% 증가, 수입액 8.3% 감소

### 참치 수출액 15.7% 증가

2024년 9월까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하였다.

수출 품목별로 김이 1위로 7억 7천만 달러(전체의 34.63%)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7.4% 증가하였다. 참치는 2위로 4억 4천만 달러(전체의 19.87%)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증가하였고 이빨고기는 수출액 4위로 5천4백만 달러(전체의 2.44%)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8% 감소하였다. 오징어는 수출액 9위로 3천8백만 달러(전체의 1.69%)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1.7% 감소하였다.

수출 국가별로 일본이 1위로 5억 달러(전체의 22.41%)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였고, 중국은 2위로 3억 8천만 달러(전체의 17.58%)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3.2% 감소, 미국이 3위로 3억 6천만 달러(전체의 16.03%)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2.4% 증가하였다. 이중 수출액 62.7%의 증가를 기록한 러시아는 6위로 7천6백만 달러(전체의 3.40%)를 기록하였다.

2024년 9월까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감소하였다.

수입 품목별로 연어가 1위로 3억 8천만 달러(전체의 8.80%)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6% 감소하였고, 오징어는 2위로 3억 4천만 달러(전체의 7.96%)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5% 증가하였다. 명태는 4위로 2억 5천만 달러(전체의 5.82%)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0.3% 감소하였고, 참치는 9위로 1억 4천만 달러(전체의 3.20%)를 기록하며 53.3% 감소하였다.

수입 국가별로 중국이 1위로 10억 달러(전체의 23.25%)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하였으며, 러시아가 2위로 6억 4천만 달러(전체의 14.87%)로 지난해보다 13.3% 감소하였다. 베트남이 3위로 5억 8천만 달러(전체의 13.49%)로 지난해보다 0.4% 감소하였다.

\* 출처: 수산무역협회자료 참고 작성



## NASA “북극해 얼음, 역사상 최저치 근접” 경고 지구온난화, 남극해에도 도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빙설데이터센터(NSIDC)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 얼음이 올해 여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최저치에 근접하였으며, 2024년 9월 11일에는 올해 최소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NASA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북극해 얼음의 최소 범위는 428만km<sup>2</sup>로 측정되었다. 이는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름 말 평균인 622만km<sup>2</sup>에 비해 약 194만km<sup>2</sup> 감소한 수치이다. 감소한 얼음의 면적은 알래스카 주보다 더 넓다.

NASA 연구진은 “북극해 대다수 얼음이 얇은 1년 생 얼음으로 따뜻한 계절에는 녹기 쉽고, 3년 이상 된 얼음은 훨씬 적어졌다”라고 밝혔다. 남극 주변의 해빙 상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연구진들은 남반구가 가장 추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주변의 해빙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NSIDC 해빙 과학자는 “북극의 해빙 변화가 수십 년 동안 극적이었던 반면, 남극의 해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

다. 지구 온난화가 남극해에도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하였다.

연구진들은 ‘아이스-알베도 피드백(ice-albedo feedback)’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밝은 해빙이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우주로 반사하는 반면, 개방된 해수는 그 에너지의 90%를 흡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더 많은 해양이 햇빛에 노출되면 수온이 상승하여 해빙 성장을 더욱 지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NASA 극저온 과학연구소장 네이션 커츠(Nathan Kurtz) 박사는 “전반적으로 해빙의 손실은 북극의 얼음 증가시키고 있으며, 온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4배가량 상승하였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지구의 극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변화가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출처: 극지해소식, 2024년 9월 30일



## 황태처럼

은기찬

두 눈 뜨고 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너울거리던 햇살이 울컥 붉어진다  
 하루의 끝에 매달려 버둥대는 맘 알까  
 알전구처럼 나는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 있다  
 바람을 맞으며 세상은 펄럭이고  
 나는 홀로 여위어가고,  
 보풀음 잘게 뜯어 속을 채우는 동안에도  
 떠밀려가는 무리들.  
 애당초 한 곳만 보며 몰려다닐 팔자였지  
 줄지어 다니다 줄지어 꺾이는 와중에도  
 소리소리 질러 봐도  
 나오는 건 없고 속만 퍽퍽해 지던 기억  
 나서지 말거라,  
 아침 햇살에도 눈을 감지 못하던 어머니는  
 그 말씀이셨다  
 아무리 파도가 희번뜩여도  
 생활만큼이야 뺏속을 파고들겠느냐고  
 뽕양고 깊은 맛이 어금니께에 고일 즈음  
 뒤척이던 노을이 소주잔에서 멈춰 선다  
 속 비우고 산 지 오래  
 열었다 녹았다, 열었다 녹았다 씹을 것도 없지, 어젠  
 일부풀어 말라가는 내 뼈를 추려  
 내일은 누구의 속을 풀어주고  
 그 다음은 누구의 허한 데를 채워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신물은 터져 나오려는 속을 굶었다  
 돌아 갈 길을 잃은 사람들 뒤에서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





## 10월 오징어 국내 동향

### 전월 대비 생산량 37% 감소, 수입량 20% 증가

#### □ 생산동향<10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감소>

10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월 대비 37.3% 감소한 1,984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38.1%, 73.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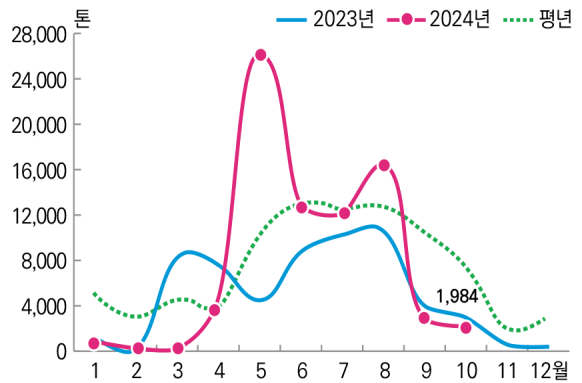
연근해산은 전월 대비 64.8% 감소한 1,082톤으로 평년(5,986톤)의 18% 정도였다.

10월은 살오징어의 남하 회유로 동해 중심의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임에도, 오징어 자원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어황이 부진하였다.

수협별 위판량은 부산공동어시장이 182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수수협(167톤), 울산수협(96톤), 마산수협(93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902톤으로 대서양 원양트롤선 조업 물량이 반입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편, 누적 반입량은 6만 5,949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0.9%, 59.4%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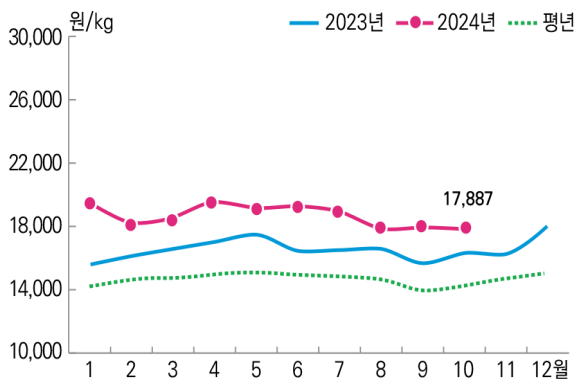


#### □ 가격동향<10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높은 가격 지속>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1만 2,436원으로 전월 대비 7.6% 하락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62.2%, 81.8% 높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 역시 kg당 1만 3,353원으로 전월 대비 2.2% 하락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1%, 33.7%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7,887원으로 전월 대비 포함세였으나,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3%, 25.8% 높았다.





□ 수출입동향<10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10월 오징어 수출량은 4,530톤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3.6%, 250.9%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196톤)으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스페인(1,086톤), 미국(37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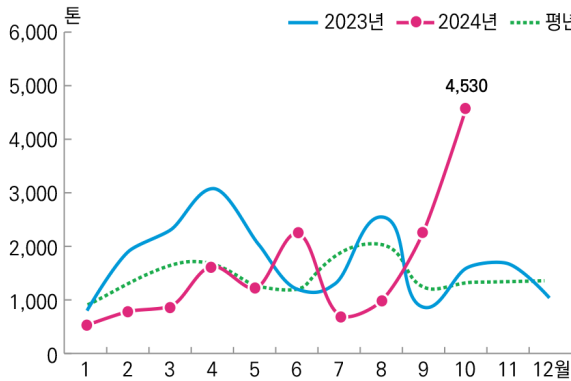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4,111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263톤, 조미오징어 105톤 등의 순이었다.

10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4,552톤으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9.9%, 11.7% 많았으며 평년과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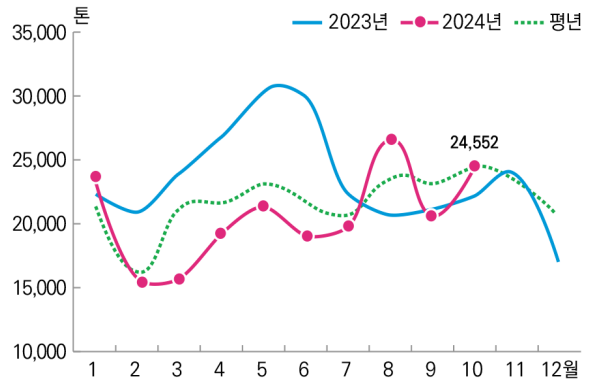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1만 2,895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페루산(6,429톤), 칠레산(1,816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1만 893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9,810톤), 조미오징어(3,544톤), 건조오징어(12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수출량 추이>



<오징어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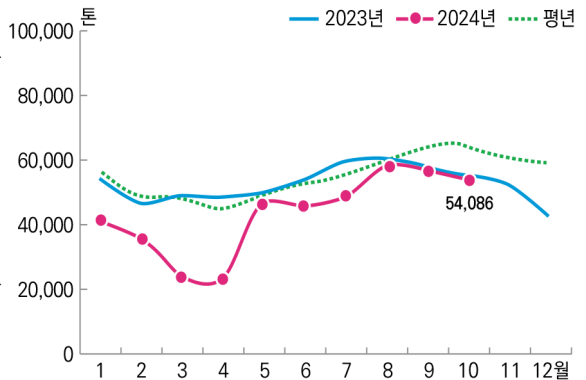


□ 재고동향<10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0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4.5% 감소한 5만 4,08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2.4%, 15.9% 적었다.

이 중 연근해산은 1만 1,89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8%, 42.0% 적었다.

원양산은 4만 2,19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 3.7%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1월호



# 10월 명태 국내 동향

## 전월 대비 반입량 26% 감소, 수입량 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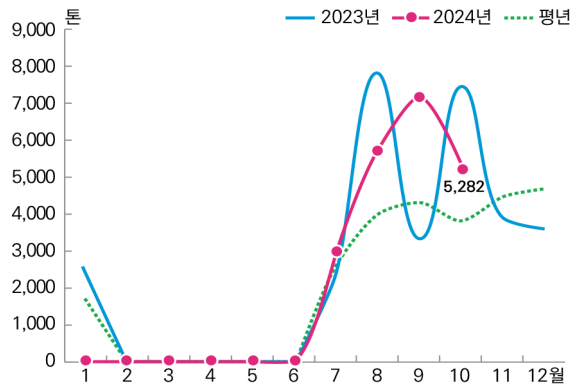
□ **생산동향** <10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보다 감소>

10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 대비 26.2% 감소한 5,282톤이었다.

작년 동기보다 28.9% 적었으나 평년보다 38.8% 많았다.

10월까지 누적 반입량은 2만 1,228톤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28.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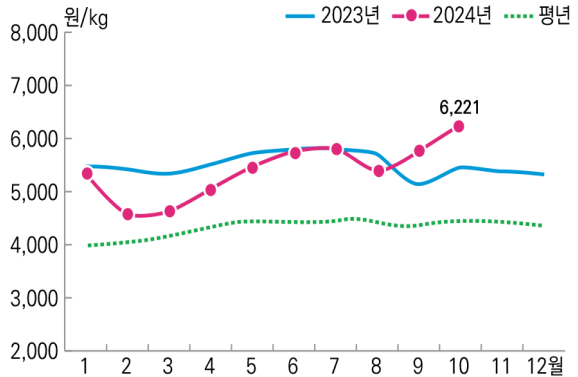
한편, 10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2만 4,786톤으로 배정된 쿼터(2만 9,000톤)의 85.5%를 소진하였다.



□ **가격동향** <10월 명태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증가>

10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277원으로 전월보다 3.8% 하락하였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1%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6,221원으로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및 일부 대형소매점의 할인행사가 종료되면서 전월 대비 8.1%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4.3% 높았다.





□ 수출입동향<10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10월 명태 수출량은 8,249톤으로 전월 대비 106.0%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및 평년보다는 각각 4.4%, 3.3%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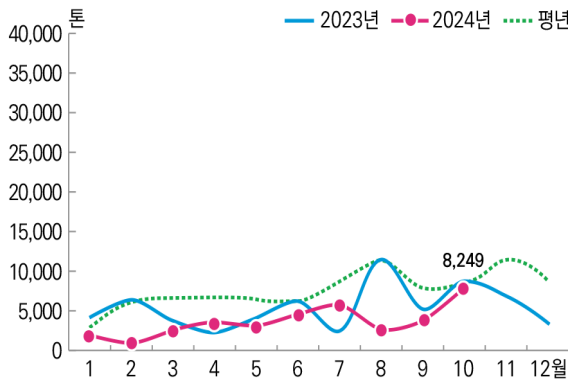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제품형태별로는 냉동명태(3,405톤), 냉동연육(1,752톤), 냉동필렛(137톤) 등의 순이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3.4% 증가한 4만 1,202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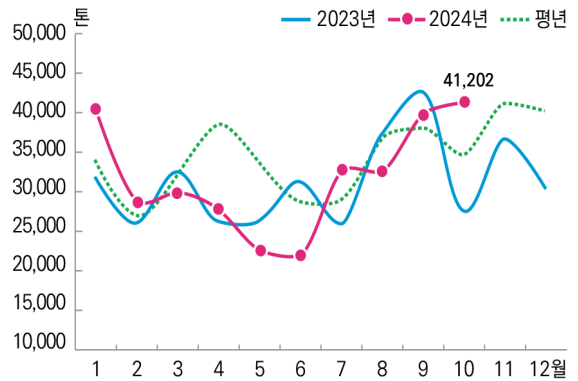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52.3%, 19.0% 많은 양이었다.

러시아산 냉동제품이 1만 7,916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필렛 1만 4,755톤, 러시아산 냉동연육 4,787톤, 미국산 냉동연육 9,968톤 등이 수입되었다.

<명태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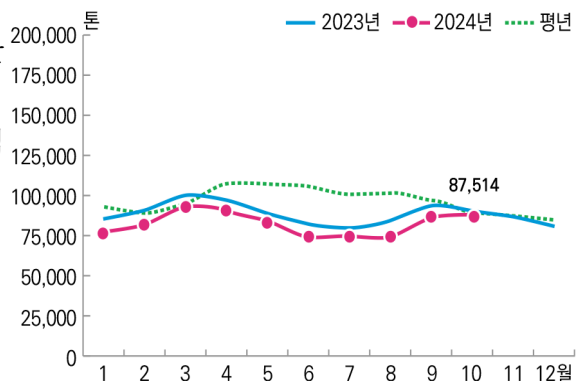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 추이>



□ 재고동향<10월 재고량, 전월 수준 유지>

10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과 비슷한 8만 7,514톤이었다.

그러나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3.6%, 2.3%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1월호



## 남극 해양생물 보존 관리를 위한 선도국가로 입지 다져 해양보호구역 확대 논의 적극 주도 및 과학적 기여 증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14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43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에 참석하여 남극해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 증진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섰다.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우리나라,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등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 남극 해양생물 및 환경 보존을 위하여 1982년 설립(우리나라는 1985년 가입), 이빨고기 및 크릴 조업을 관리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의 공동발의국으로서 참여하여 남극 해양생태계 보호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그 외에도 책임있는 크릴 조업을 위한 감시·감독·통제 강화, 투명하고 우호적인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참석자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이 제출한 크릴 및 이빨고기 입어신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크릴 및 이빨고기 입어는 엄격한 규정 및 검증절차에 따라 준법 조업 및 과학데이터 수집 능력이 보장된 선박에만 승인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회원국(총 12개국 30척) 중 최다척수인 10척에 대해 이빨고기 입어를 승인받아 책임있는 조업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흔히 “메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빨고기(toothfish)는 최근 방영된 인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서 ‘트리플스타’로 출연한 강승원 요리사가 비기(祕器)로 활용한 고급 식재료로, ‘바다의 꽃등심’이라고도 불린다. 해외에서는 고가의 스테이크용으로 많

이 쓰인다. 이빨고기는 '24년 9월 누적 기준 김, 참치에 이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 4위를 차지한 수출효자상품으로, 우리나라는 '23~'24어기동안 남극수역에서 1,942톤의 이빨고기를 생산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77억원, 1인분(200g)으로 환산하면 서울시민 전체(약 935만명)가 한끼만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더하여 금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신규 과학조사를 승인받아 이빨고기 200톤을 추가 할당 받았다.

한편 남극수역 내 우리나라의 과학적 기여를 인정받아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의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상덕 연구사는 2018년부터 CCAMLR 과학위원회 우리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우리나라 이빨고기 시험조업 및 과학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고, 극지연구소와 함께 로스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연구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극해 해양 생물 보존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과학위 의장단 구성: 의장(임기 2년, 추가 2년 연장 가능), 제1 부의장, 제2 부의장(1년 후 제 1부의장으로 승격)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안전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졌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박이 이빨고기 등 남극 어종을 어획하면서도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과학적 기여도 충실히 하도록 우리 원양어선의 책임있는 준법조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 원양어업허가 관련 민원절차 규제 완화

### 허가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입항신고 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알뜰한 김장, 수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 12.1까지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12월 1일(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 상세 내용은 “[www.fsale.kr](http://www.fsale.kr)”에서 확인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 비축 천일염 5천 톤과 고등어 6백 톤, 오징어 2백 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11월 11일~29일) 동안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시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수과원, '메로' 신규 원양어장 확보 발판 마련 남태평양에 연간 240톤 과학조사쿼터 확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가 남태평양 해역에서 향후 3년간(2025-2027) 연간 최대 240톤의 이빨고기(메로) 어획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빨고기의 새로운 어장개발을 위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의 시험조업계획\*이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동 기구 내의 과학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내년 2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현재 EU, 호주, 뉴질랜드만이 신규 어장개발을 위한 탐색조사를 조건으로 저연승 시험조업을 승인받음  
새로운 시험조업은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11만km<sup>2</sup>

어장에서 이빨고기의 분포 및 자원량, 남극 이빨고기 계군과의 연관성, 부수어획종 등을 조사하여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새로운 어장 확보와 함께 동 수산기구에 대한 과학적 기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기존 남극해역과 남서대서양 어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온 원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시험조업계획서는 올해 초부터 관련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차례의 작업반 회의와 과학위원회의 엄격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다.

## 국제해사기구와 세계 해양환경 전문가 양성 협력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ODA'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본 협정에 따라 5년간 104억 원 규모의 자금을 국제해사기구(IMO)에 공여하고 체계적으로 전 세계의 우수한 해양환경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이 운영 중인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과정' 석사 과정의 입학 규모와 교수진을 늘리고 커리큘럼 다양화 등 과정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안공학, 해양오염방지 기술 등 해양환경 분야 별 석사급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몽골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관련 행정적, 기술적, 법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워크숍 등 단기 과정과 국가별 맞춤형 자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해양투기 모니터링 기술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연 락 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총괄(겸직)
		김효상 과장	기획
		조성주 과장	홍보
		김민재 주임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총괄
		김영수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임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원양어업관리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참치선망
		김지원 사원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최상진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센터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센터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	국가	담당자	연락처
명예해양수산물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	679-330-7188 ckpfi@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	675-321-8137 jc651016@gmail.com	

**발행** 2024년 11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